

세계시국

WEEKLY

no.04

part.01



세계시국
행진 
▶▶▶ 랩동하라

Peace, Not War



4주차 행진 경로

9.5 **금** 알락꼬리마도요의 날
인덕원역 1번출구-이수역 4번출구(11.1km)

인덕원역 1번 출구 - 에어드림공원 - 과천중앙공원 (점심) - 남태령고개
 - 남태령어린이공원 - 이수역4번출구

13:30 남태령 + 새 세상을 여는 새, 사람행진 남태령 기자회견+

14:00 남태령 출발 + 생명상징함께행진+

15:00 이수역 + 새 세상을 여는 새, 사람행진 문화제+

9.4 **목** 고라니의 날
고용노동부경기지청-인덕원역 1번출구(13.2km)

고용노동부경기지청 - 북수원 호행공원 - 의왕우체국 옆 공원 -
 구도일주유소평촌 - 내손양지공원 (점심) - 인덕원역 1번출구

9.3 **수** 금개구리의 날
병점역-울전동성당(13.9km)

병점역 - SK행복충전 황계충전소 - 세류역 -

10:20 + 수원군공항 관련 기자회견+

수원역 - 화서1동행정복지센터 (점심) - 울전동성당

14:20 + 수원군공항 관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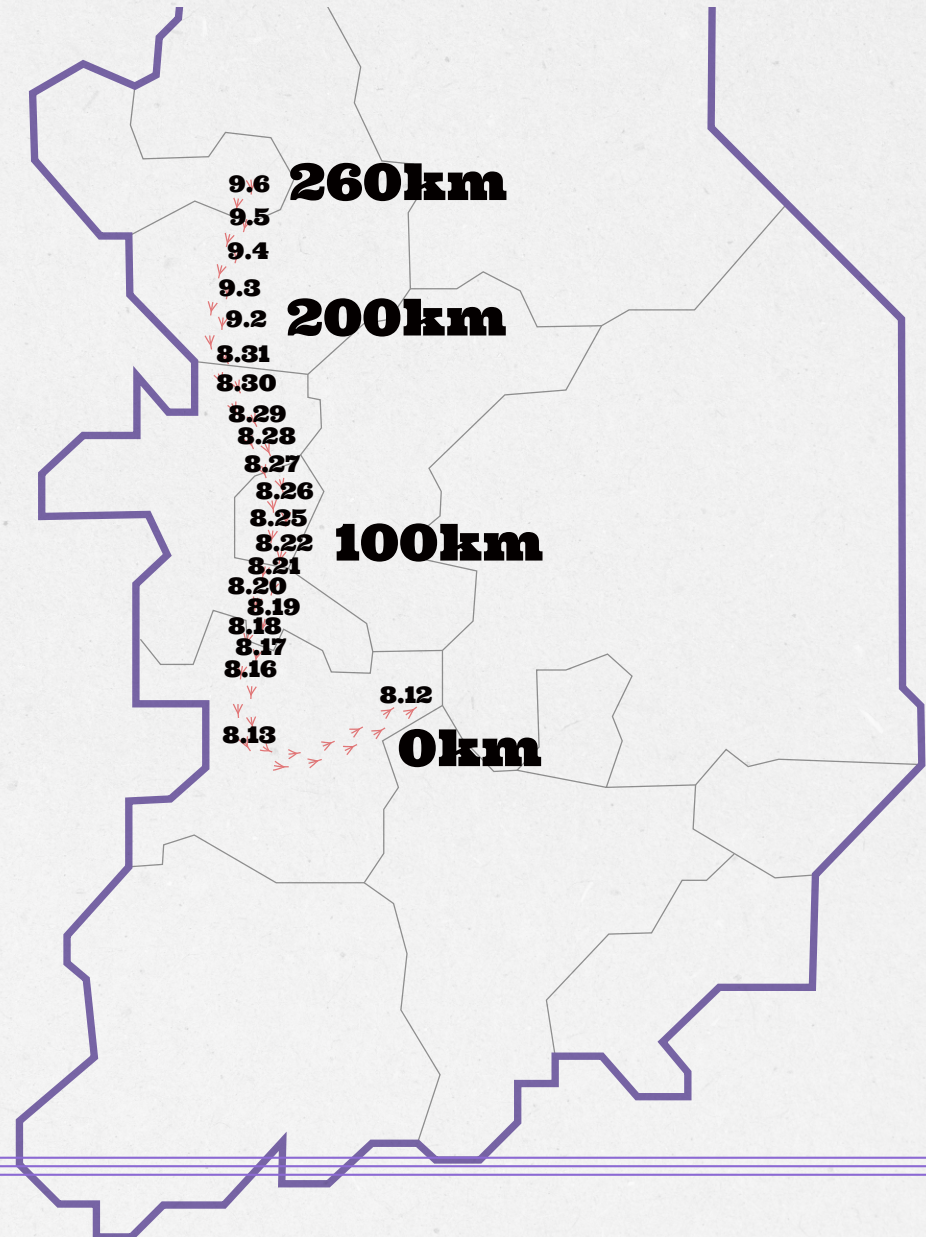
9.2 **화** 바지락의 날
진위역-병점성당(12.3km)

진위역 - 갈곶삼거리 - 주유소 - 수청근린공원 - 유엔군초전기념관 (점심) - 병점성당

9.6 **토** 물수리의 날
동작대교 전망실터-경북구역 4번출구(10km)

동작대교 전망실터 - 서빙고역 - 용산 전쟁기념관 (점심) - 서울역 - 경북구역 4번출구

15:00 경북구역 4번출구 + 생명지킴이대회+



- 8 들어가는 글 _ 박영길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4 - 실행

250902 바지락의 날

- 22 수라의 외침 _ 딸기
- 24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흥!흥!흥! 멈추지 않는 흥행진
- 26 함께해요<새,사람> _ 공작,새 / 갯벌친구만들기
새,소품 만들고 새,사람되자

250903 금개구리의 날

- 38 수라의 외침 _ 딸기
- 40 수원 군공항 폐쇄! 기자회견 발언1 _ 이인신 수원 군공항 폐쇄만이 답이다
- 42 수원 군공항 폐쇄! 기자회견 발언2 _ 김현정
수원 군공항 이전을 중단하고 군공항을 폐쇄하라!
- 44 수원 군공항 폐쇄! 기자회견 발언3 _ 김연태 수원 군공항의 위험성
- 48 수원 군공항 폐쇄! 기자회견문 개발과 전쟁의 시대를 넘어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수원 군공항 폐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250904 고라니의 날

- 56 수라의 외침 _ 딸기
- 58 경향신문 정동칼럼 _ 미류 큰뒷부리도요에게 사랑하고 싶은 것
- 62 시사in [시선] _ 이명익 수라갯벌 새들, 남태령도 넘어갑니다
- 64 노동과 세계 현장투쟁 소식 _ 조송자 기후 재난의 시대...
자연과 인간은 서로 연결, 서로 돌보며 살아야

250905 알락꼬리마도요의 날

- 76 수라의 외침 _ 딸기
- 80 새 세상을 여는 새,사람행진 기자회견 발언 _ 오두희
- 86 새 세상을 여는 새,사람행진 기자회견문
- 94 새,사람행진기 4 _ 알알이
도요새도 고라니도 함께 넘자, 함께 살자
- 106 새 세상을 여는 새,사람행진 참여기 _ 김화용
우리는 비인간 '동지'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남태령을 넘었다
- 114 한국농정신문 기사 _ 강선일
큰뒷부리도요와 인간, 수라갯벌 평화 위해 함께 남태령 넘다
- 120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알락꼬리마도요의 날, 못생명의 행진 남태령을 넘다

250906 물수리의 날

- 132 수라의 외침 _ 딸기
- 134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홍보문 생명지킴이대회 함께 해요
- 136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선언문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서 생태 학살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 138 함께 부르는 노래 _ 강정사람들 우리가 구럼비-수라갯벌이다
- 140 지리산인 기사 _ 청명 새, 사람 함께 살자

- 146 REFLECTION_ Tony Not-Yet Humanity
- 150 안동 초원사진관 이재각 작가 지면사진전
새와 사람의 초상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4 - 실행

행진단이 군산에서 멀어질수록 점차로 군산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진다.

처음 난리법석프로젝트로 군산에 가서 미공군 기지와 사라진 하계마을을 볼 때는 막연하게 느껴졌다. 기지의 주인이 미국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청주에서 보던 풍경과 닮은 듯 낯설어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산 미공군 기지 감시활동을 오래도록 진행하고 계신 구중서 조직팀장을 만나고는 막연했던 전쟁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깨어남을 느꼈다. 피상적으로 모든 군사기지를 반대한다는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던 나에게 기지 안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전쟁무기들을 설명듣고 나니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끼쳤던 것 같다. 특히나 구중서 조직팀장의 안내로 처음으로 무인 드론기 그레이 이글을 몇 십미터 밖에서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는 큰 충격이었다.

구중서 조직팀장은 상시적으로 기지 안의 변화들을 감시한다. 보지 못하던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할 때마다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기록해 둔다. 그런 그의 활동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깨닫는 게 있다. 활동가들이란 어떻게 사유하며 실행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원론적인 고민이다.

최근 군산 미공군기지는 변화하는 중이다. 단순히 확장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전쟁수행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미군은 멀지 않은 지역의 적 지상전력을 타격하는 A-10 공격기를 퇴역시키고, 장거리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최첨단 무인기이자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할 때 동원된, 작전 반경이 1천Km 이상인 무인기 MQ-9A 리퍼 20대 이상을 오는 9월쯤부터 군산 기지에 3개월씩 순환배치 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군산 기지의 F-16 전투기를 오산 기지로 옮기는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 공군은 "7월 28일부터 첫 번째 F-16이 군산 기지에서 오산 기지로 이전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31대의 F-16 전투기와 1천 명의 장병들이 오산 기지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F-16이 떠난 군산 기지의 빈자리는 향후 F-35

스텔스 전투기가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군 핵심 관계자는 "F-35 군산 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모종의 공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 주한미군 감축설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주한미군 고도화에 힘쓰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군산 미공군기지의 변화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TV로만 보던 전쟁의 신기술이 전선에서 귀환하여 국내 군사기지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에 따라 해외군사영역에서 설계된 전략이 함께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갈등은 점차 군사화되고 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공격이나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사태가 보여주듯이 내전과 맞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군대를 국내정치에 개입시키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에 의해 불법이민자 단속이나 추방, 워싱턴 노숙자 단속 같은 일들에 군대가 동원되고, 국내에서는 부정선거를 증명하겠다고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선거에 이용하고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처럼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실제 전쟁이 도래하기 전 단순 위협에도 선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점점 더 감시 기술로 지배하고, 위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그만 낱새를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위협환경을 제거한다는 전략, 그것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밝히듯이 아직 완전히 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선제적 전쟁수행 상황에서 수라갯벌을 메우고 새롭게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고 미군이 통제하는 신공항을 만들면, 그공항은 어떻게 작동할 것이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보통 활동가들의 사유란 학자들과 달라서 매일 혼자서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사유해야 한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지나 전문가 혹은 지역의 사람들과의 공동작업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가들의 실행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동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내내 염두에 두는 작업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인정하는 가장 명확한 실행가가 구중서 조직팀장이 아닌가 싶다. 그를 포함한 기지감시활동가들이 느끼는 전쟁은 어쩌면 이미 도래한 사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활동은 전쟁반대활동의 최일선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전쟁을 막자.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하라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군산미군기지 확장이 될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법원청의 협의 통보가 가까워졌습니다. 9월 11일에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새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공항, 군산미군기지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인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북지방법원청은 마땅히 부동의해야하고,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해야합니다.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수라갯벌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큰뒷부리도요새와 행진을 시작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 8월 12일(화)부터 9월11일(목)까지

| 행진 경로 : 전북지방법원청-수라갯벌-서천갯벌-부여-공주-국토교통부
-천안-평택-화성-수원-안양-용산-서울행정법원

[주요 일정에 함께해주세요]

- 8/12(화) 오전 9시30분 전북지방법원청 새,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 8/13(수) 오전 9시 수라갯벌 행진단 선언
- 8/25(월) 오후4시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강행 규탄 집회
- 8/31(일) 오후3시 진위역 앞 세계 연대의 날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행진과 집회
- 9/5(금) 오후 1시 30분 새 세상을 여는 <새,사람행진> 기자회견 및 오후 2시 남태령고개 행진
- 9/6(토) 오후 3시 경복궁역 4번출구 국립고궁박물관 네거리 생명지킴이대회
- 9/8(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과 행진 마무리
- 9/8(월)-10(수) 서울행정법원 앞 문정현 신부의 서각기도
- 9/11(목) 오후 1시 55분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선고 재판

| 후원계좌 : 농협 351-0390-7008-93 문정현

| 문의 010-2612-2322(오이), 010-6795-1202(덕이)

| 주최 : 새,사람행진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250902

바지락의 날



©TONY

©TONY



병점성당

오산시
Osan

9.2 화 **바지락의 날**
진위역-병점성당(12.3km)

진위역 - 갈곶삼거리 - 주유소 - 수청근린공원 - 유엔군초전기념관 (점심) - 병점성당

서탄면
Seotan-myeon

진위면
Jinwi-myeon

진위역

바지락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바지락의 날입니다.

바지락은 주변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나게 되는 조개입니다. 껍질의 무늬는
하나도 같은 게 없이 모두 다르며 모래가 섞인 조간대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시베리아 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이 주요 서식지입니다. 육식성인 큰구슬우렁이는
바지락을 무척 좋아합니다. 해변에서 작은 구멍이 뚫린 바지락 껍질을
발견한다면 큰구슬우렁이에게 잡힌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수라갯벌을 비롯해 새만금 전역에는 '바다가 통장'이라며 살아가던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바지락, 백합, 동죽등 크고 작은 조개가 언제나 풍성했던 그야말로
황금 갯벌이었습니다. 맨손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바다에 나갈 힘만 있다면
은퇴도 없이 일을 해 삶을 꾸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이후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은 하얗게 조개 무덤이 펼쳐졌습니다. 갯벌안에 자리잡던
조개들은 바닷물을 그리워하며 입을 벌린 채 말라갔습니다. 새들도 어민
공동체도 해체됐습니다.

새만금 갯벌의 변화는 새만금에 국한되지 않고 방조제 바깥 바다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고창지역은 3~4년 사이에 빨충이 20cm이상 쌓여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성장을 다 마치기 전에 바지락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
상태에서 갯벌은 연간 1mm 정도 퇴적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창 지역의
변화는 200년의 변화가 한꺼번에 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얇은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에게도 그 바지락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 후 연간 1조 원의 어민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10년간만 피해액을 계산해도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갯벌생물들의 목숨과 어민공동체의 해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요. 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하는 갯벌의 생태계는 결국 인간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갯벌이 죽으면 인간도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개발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라갯벌은 말합니다. 바지락처럼 흔하고 작은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이 성숙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정부가
답습해온 개발정책이 현재 어떤 결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의 정책 결정으로 사그라진 못 생명들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법원이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는 판결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흥!흥!흥! 멈추지 않는 흥행진

이 행진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들이 함께 하고 있다

9월 2일 행진 22일차, 서해안을 대표하는 바지락의 날이다. 수라갯벌을 비롯해 새만금은 '바다가 통장'이라 했던 그야말로 황금 갯벌이었다. 맨손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바다에 나갈 힘만 있다면 은퇴도 없이 일을 해 삶을 꾸려 갈 수 있었다. 이제 그 새만금은 새하얀 조개 무덤이 되었고 어민 공동체도 해체되었다. 새,사람행진단은 새만금 갯벌이 다시 살아나 그 풍요로웠던 바지락과 생명들이 회복되길 바라며 바지락의 날을 시작하였다.

오전 9시 진위역에 모인 새,사람행진단은 방송차를 수라의 새들이 수놓아진 천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오늘의 행진을 나섰다. 행진단은 엇그제 국제연대의 날 행사를 마친 이후에도 세계 연대 메시지가 런던, 캐나다 등 계속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수록 행진에 힘이 더해지고, 흥이 더해지며 행진단은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비건 지향 모임을 통해서 수라갯벌과 새만금신공항 문제를 알고, 이번 행진에 참여하게 된 권아리는 "수라갯벌과 근처 습지를 탐방하면서 그곳에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곳을 없애고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공항을 만든다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진에 처음 참여했는데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행진이었다. 평택에서 오산으로, 오산에서 화성으로, 3개 시에 걸쳐서 행진한 경험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이 행진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새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도요새와 저어새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걷는데도 불구하고 즐겁잖아요. 에너지가 남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후에 또 오고 싶다. 남태령을 넘을 때 온다면 도요새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고 싶다. 넓적부리도요새를 그렸다"라며 다시 행진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행진단은 12Km 병점역까지 금세 도착한 것 같으며 9.5 남태령 집중 행진을 홍보하고 오늘의 행진을 마쳤다. 행진단은 민주노총경기본부, 다산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등 경기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의 진심어린 마음과 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9월 3일은 병점역에서 울전동 성당까지 14Km를 행진한다.

함께 해요 <새, 사람>

새, 소품 만들고 새, 사람 되자!



평화바람 새모자만들기 유튜브영상



새사람만들기 유튜브영상

공작새
갯벌친구들만들기

예시편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걷는 남태령 행진

뉴질랜드에서 서해 갯벌까지 10,000km를 날아 오는 큰뒷부리도요.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수라갯벌이 없어진다면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큰뒷부리도요는 사라질 것입니다. 남태령은 지난 겨울 시민들이 법의 통제를 뚫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지켜낸 곳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힘으로 법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로 큰뒷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게 함께 행진합니다.

참여 방법

모자, 깃발, 피켓 등 각자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소품을 만들어 먼 길을 외롭게 걸어온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을 향해 행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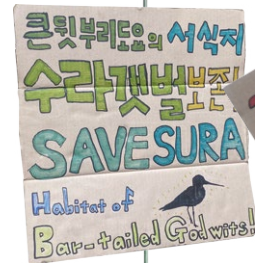
몸저본



금개구리모자



깃발



피켓



인형키링

전디오영가면



우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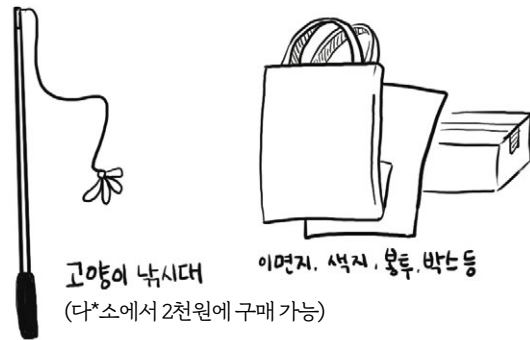
백지



공작새 갯벌친구들만들기 실전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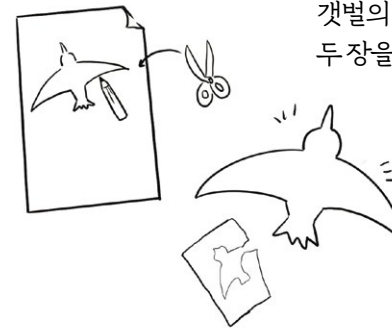
1. 준비물

긴 막대기와 연결할 끈, 두꺼운 종이와 꾸미기 재료를 준비합니다.



2. 그래서 자르기

갯벌의 생명들을 그려서 올려줍니다.
두 장을 겹쳐서 자르면 한번에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꾸며주기

재미있게 색도 칠하고,
자유롭게 꾸며줍니다.
날개를 살짝 접어주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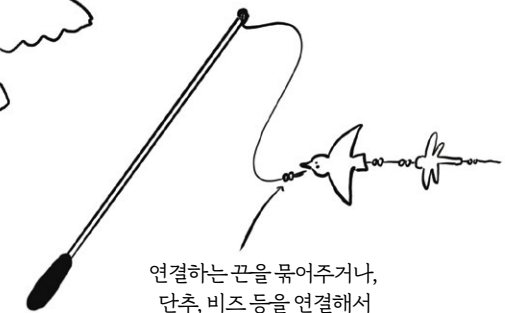


4. 겹치기

한쪽 면에 빨대를 연결해 줍니다(생략가능),
두 장을 겹치면 좀 더 튼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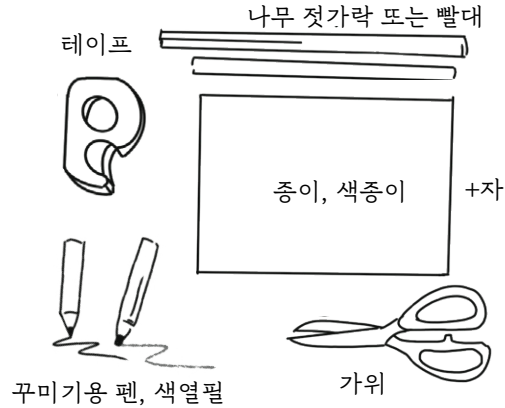
5. 연결하기



기존에 달려있던 장난감을 제거하고, 빨대 또는 겹쳐진 종이 사이에
끈을 넣어 이어줍니다, 움직이지 않게 양끝을 마감해주세요.

1.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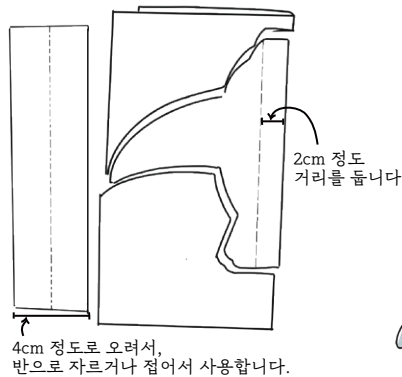
종이와 빨대 또는 나무젓가락, 꾸미기 도구와 가위,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공작, 새 갯벌친구들만들기 실전편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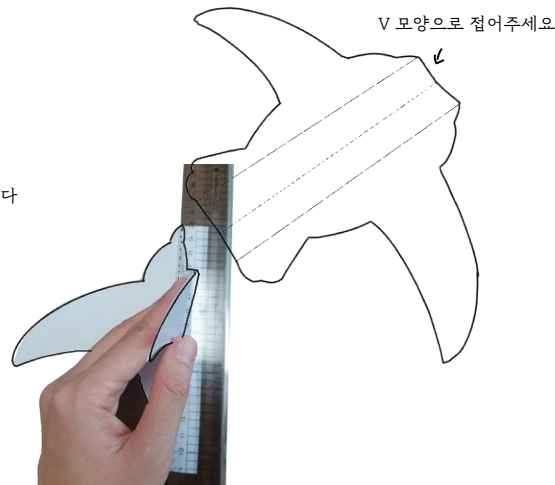
2. 오리기

종이를 반으로 접어 2cm 정도 간격을 두고 갯벌 친구의 반쪽 모습을 그리고 오려줍니다. 날개를 움직여줄 긴 띠도 오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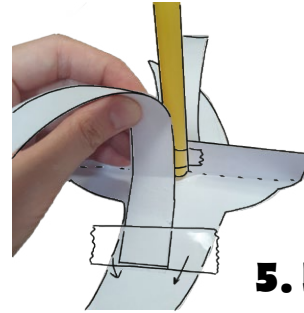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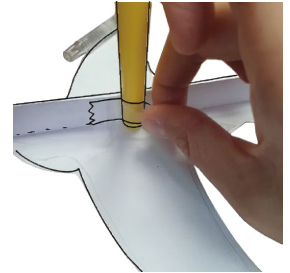
3. 접어주기

빨대에 끼울 수 있게 여백을 접어줍니다.



4. 빨대 붙이기

자른 빨대 틈에 접어둔 종이를 끼우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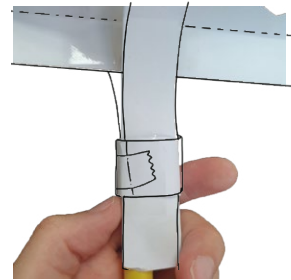


5. 띠 붙이기

움직임을 줄 수 있게 오려두었던 띠를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 양쪽 날개 각각의 중간쯤에 붙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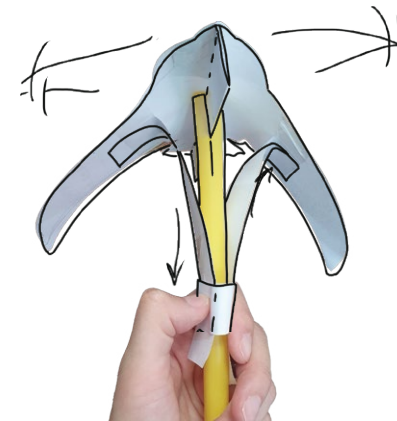
6. 고정시키기

양쪽 날개에 붙인 띠의 아래 쪽을 종이로 감싸 연결시켜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테이프로 두르면 빨대에 붙어서 종이를 돌려주었습니다)



7. 파닥이기

손잡이를 위, 아래로 움직여 날개를 파닥여 봅니다.







©임금재벌

250903

금계구리의 날



©TONY



©TONY



금개구리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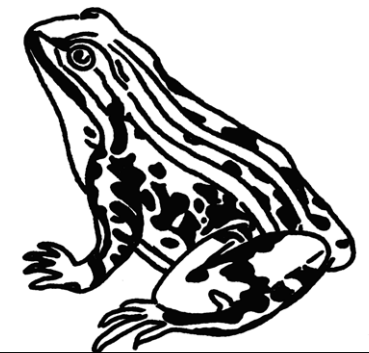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금개구리의 날입니다.

개구리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양서류입니다. 그중 금개구리는 눈
뒤부터 등까지 양쪽에 갈색과 금색의 뚜렷한 용기선이 두 줄 있고 배면은 황색
또는 금색입니다. 보통 4월이면 동면에서 깨어나 5~7월까지 서식했던 장소에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개구리는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서해안 지역을 따라 서식합니다. 촉촉한 습지가 있는 수라갯벌은
이들의 집단 서식이 확인 된 지역중 하나입니다.

사실 새만금의 다양한 지역에서 금개구리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금개구리가 2200개체가 발견됐고
금개구리들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와 익산의 다래못으로 집단이주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만금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기반공사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곳곳이 파괴될 때 마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대체서식지'로 불리는 곳으로
집단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의 책임 다한다면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체서식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멈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집단이주를 당한 금개구리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양동이로 밀어 올린 금개구리들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멸종위기종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는 서식지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다시 한 번 갯벌을 파괴하고 그곳에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파괴합니다. 재판부는 기후 재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서식지에 살고 있는 한 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서식지 자체를 보존하는 일에
재판부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원 군공항 폐쇄만이 답이다

새,사람행진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행진을 함께 했는데요, 평택에서 오산으로 넘어오니 기다렸다는듯 전투기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수원 군공항은 군산 미군 공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건설됐습니다.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와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군공항은 안보논리로 논쟁의 불가침 영역에 있었습니다.

군공항이 도시화와 함께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지 수십년의 시간이 흘러 정치권과 자본은 드디어 계책을 찾은 듯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민간공항 건설이 그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확장은 새만금 신공항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은 경기국제공항으로 말만 바뀌어 또다른 토건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꼼수이듯 경기 국제공항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민들은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기 싫습니다. 우리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성습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곳에 사는 저어새를, 장다리물떼새를, 황새를 쫓아내기 싫습니다. 오히려 인접 지자체 시민들로서 그 자연환경을 함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원합니다. 적자 운영으로 경제성도 없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모든 신공항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수원 군공항도 그 흐름에 맞게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걸음이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 군공항 이전을 중단하고 군공항을 폐쇄하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못 생명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새, 사람 행진'을 수원에서 이어갑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 4년 4개월 동안 전국 곳곳의 소중한 동지들과 함께 새만금신공항을 막아내고,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1,281일이 넘는 천막농성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솟는,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오늘 수원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수라갯벌을 지켜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품을 내어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갯벌과 그 안의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라갯벌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수천만 생물들의 터전이며, 바다와 강을 잇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결국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새만금신공항과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수원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군공항 폐쇄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원 지역 정치인들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화성 갯벌을 군공항 이전지로 삼아 '수원군공항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이며, 화성 갯벌의 수많은 생명들을 내쫓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개발사업들은 새와 물고기, 갯벌의 작은 생물들, 하늘을 나는 철새, 바다를 지나는 물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선택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파괴하는 사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갯벌 속 작은 조개 하나, 철새 한 마리, 바다와 강을 오가는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연결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와 수라갯벌 보존, 수원군공항의 이전이 아닌 폐쇄를 향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못 생명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하라!

수라갯벌을 지켜내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중단하고 군공항을 폐쇄하라!

수원 군공항의 위험성

새만금신공항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 행정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새,사람행진단 김연태입니다.

새,사람행진단은 어제 화성시에 도착해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따뜻한 점심식사와 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택가 위를 낮게 날며 폭음을 터뜨리는 전투기들의 반갑지 않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미군기지우리땅찾기 투쟁을 27년 동안 이어오면서 전투기소음에는 조금 면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화성시내 주택가 위로 날아 다니는 전투기의 폭음에 정신줄을 놓을 뻔했습니다. 화성과 수원지역민들은 일제시대부터 80여년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전투기가 있는 군공항은 전쟁수행 목적을 위한 무기와 각종 폭탄을 쌓아놓은 매우 위험한 곳 아닙니까?

2020.10. 국정감사에서 김진표의원은 "수원공항 제10전투비행단 내에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이 보관되어 있고, 반경 5km 이내에 2만 가구가 살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핵발전소 핵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열화우라늄탄은 발암물질로 인간과 생명체들에게 각종 암과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무기는 어디에 있든지 위험합니다. 따라서 수원공항 전투기와 수 많은 폭탄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쟁무기를 사들이면, 주변국가들도 더 많은 군사무기와 폭탄을 쌓아야

하는 악순환과 긴장관계는 계속 증폭될 것입니다. 이웃과 다툼이 있었다하여, 반감과 적대적인 관계만을 고집하고 칼과 창, 도끼를 준비하는 것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고 평화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기를 사는 돈으로 관계가 악화된 이웃과 막걸리잔을 기울이거나 저녁을 나누면서 화해를 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첩경이 아닐까요?

우리 행진단 어른이신 문정현신부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란,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 두꺼비 땀뽕이 도롱뇽이 서식지를 잃지 않는 것,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 성폭력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세상, 무기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사람행진단은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을 털어내는 내용의 가락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걸을 때,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도 지치지 않고 이곳까지 23일째 걸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와 사랑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기 위해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수원,화성시민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수원군공항을 폐항시키면 좋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없습니다!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수원공항 당장 폐항하라!

열화우라늄탄 즉시 폐기하라!



개발과 전쟁의 시대를 넘어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수원 군공항 폐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난개발과 공항의 굉음으로 신음하는 새와 사람이 만나 행진을 한다. 수원 시민은 수원 군공항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군산은 허황된 난개발의 상징 새만금이 신공항 건설 욕망에 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 공항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고 경고해 왔다. 비행기와 난개발은 지구 온도를 높여 매년 폭염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군공항을 화성습지로 옮기겠다는 이기심이나 미군기지를 확장해 수라 갯벌을 파괴하겠다는 폭력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다. 여기에 관련된 미군, 국방부, 전라북도, 수원시 모두가 기후 악당이다. 우리는 악당이 되기를 거부하며 새와 사람과 함께 행진한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정의라는 원칙으로 취소 판결이 나오길 염원하며 행진한다. 수원 군공항은 폐쇄만이 답이다. 도심지에 있는 군공항의 소음이 시민들의 일상을 핏댄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는 온실가스와 비행운으로 지구를 뜨겁게 달군다. 전쟁의 위기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는 군공항이 수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전 후보지로 유력한 화성습지는 국제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경로 중 하나다. 국가와 지자체가 달성하기로한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습지다.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매항리 폭격장의 상흔이 남아있는 전쟁의 현장이다.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시민들의 이익과도 배치된다. 이제 정치는 해묵은 정치의제로 수원 군공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제를 던져야 한다.

수원 군공항 폐쇄가 바로 그 해답이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백지화가 답이다.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 살고 있는 쇠제비갈매기, 줌도요, 흰물떼새, 민물도요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살 곳을 잃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탐욕으로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다. 그 일대의 생태계가 수라갯벌을 제외하곤 완전히 파괴됐다. 우리는 새만금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 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 했다는 말인가. “아름다운 것을 본 죄”에서 멈춰야 한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은 말했다. “아름다운 것을 본 죄”로 수라 갯벌의 생태조사를 멈출 수 없다고. 우리에게겐 기회가 남아있다. 아름다운 것을 본 죄까지만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름다운 것을 파괴한 죄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하게 촉구한다.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결하라. 수원시와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폐쇄를 결정하라.

2025년 9월 3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단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





250904

고라니의 날



©TONY



©TONY



인덕원역

과천시
Gwacheon

9.4 목 고라니의 날
공용노동부경기지청-인덕원역 1번출구 (13.2km)

고용노동부경기지청 - 북수원 효행공원 - 의왕우체국 옆 공원 -
 구도일주유소평촌 - 내손양지공원 (점심) - 인덕원역 1번출구

안양시
Anyang

의왕시
Ui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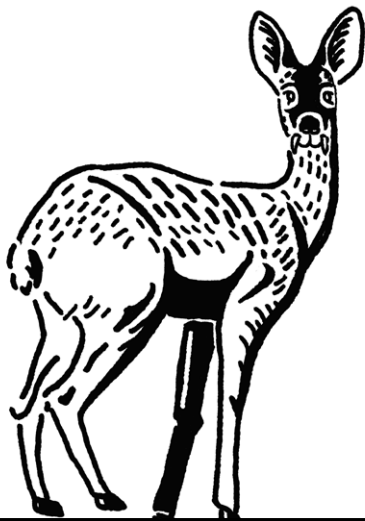
공용노동부경기지청

수원시
Suwon

고라니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고라니의 날입니다.

고라니는 중국과 한반도 고유종입니다. 한국 고라니는 해발 600m이하에서 주로 관찰되며 봄에는 경작지 인근 풀숲에, 여름에는 강기슭이나 계곡 주변의 초지에 가을에는 야산의 풀숲과 논과 밭, 겨울에는 양지바른 논둑에서 인가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고라니는 사슴과의 가장 원시적인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뿔이 없는 대신 수컷은 긴 송곳니가 발달해 있습니다. 새순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하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새순을 찾아 먹고 소화 시키는 데에 씁니다.



고라니는 중국과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야생동물이지만 농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1984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할 수 있는데 2022년까지 15만개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라니는 로드킬 피해도 높아 2022년 기준 16만개체가 로드킬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지만 생태계에서 고라니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라니의 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라갯벌에서는 염습지 지역에서 고라니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인기척을 느끼고 짹짹 도망가는 뒷모습을 주로 보게 되지만 종종 어미와 아기 고라니가 나란히 물을 먹는 모습도 멀리서나마 목격하게 됩니다. 갈대풀이 무성한 곳을 탐방할 때 종종 방향을 잘 못 잡기도 하는데 그럴때면 고라니가 수풀속을 지나며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른 갯벌로 가게됩니다.

도심 행진을 하며 무참히 파헤쳐지는 숲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산 중턱에 딱하니 만들어진 새로운 마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야금야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어지니 사람들과 더 가까이 살 수 밖에는 없으나 사람들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고라니똥도 자연에선 쓸모가 있는데, 인간은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일입니다.

큰뒷부리도요에게 사랑하고 싶은 것

그들은 부리가 크고 위로 휘어 큰뒷부리도요라 불린다. 쉬지 않고 가장 멀리 나는 세계기록을 가진 새다. 1만3000여km. 알래스카에서 번식하고 뉴질랜드에서 월동하는 철새의 운명이 남긴 기록이라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다. 다행히, 봄이 와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잠시 머물 곳이 있다. 한국의 서천갯벌과 수라갯벌. 그 지척이 새만금 신공항 부지다.

새만금 역시 세계기록을 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될 때는, 얼마나 많은 토석을 쏟아부었는지, 국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날지, 공사비용은 얼마며 동원된 인력과 장비 규모가 어땠는지, 그 모든 기록이 '바다의 만리장성'을 가진 자부심에 동원되었다. 훗날 '잼버리 사태'라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새만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실패가 기본값이다. '메가프로젝트의 철칙'이라고 한다. 비용은 늘어나고 시간은 길어지며 계획은 계속 달라진다. 경험은 쌓이지 않고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실행 가능성은 희미해진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다. 타당성을 평가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기념비적' 개발에 자신을 결부시키고 싶은 정치인들이, 기대를 수정하는 대신 미래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은 1987년 대통령 선거가 낳은 프로젝트다. 야당 후보 김영삼이 던진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여당 후보 노태우가 '복붙'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야당 총재 김대중이 촉구하며 착공했다. 착공 이후 멈출 기회가 있었다. 유사한 개발사업인 시화호 오염 사태가 드러나면서 새만금 개발 백지화 요구가 확산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염원"을 내세운 지방정부가 반대 여론을 제압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 소송도 있었으나 법원은 멈출 기회를 내버렸다. 2006년, 방조제가 끝내 바다를 막았을 때 애초 계획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2004년이면 다 끝나 있을 거라던 시간표도.

"문제는 속도입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분주하더니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날개를 달아줬다. 비용 대비 편익도 낮고 인근 군산공항만 봐도 적자가 뻥히 예상되는 사업이다. 수많은 생물에게서 갯벌을 빼앗고 새들을 항공기와 충돌 사고로 몰아넣는 일이다. 더 나은, 더 책임 있는 결정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새만금과 함께 민주주의도 실패하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는 흔히 경제 대 환경, 인간 대 생태의 구도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민들의 반대를 묵살하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었다. 개발은 무언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대가로만 성사된다. 계산도 되지 않는 생물들처럼 어떤 인간들은 값싼 존재가 되어 지워지거나 착취당한다. 개발의 혼한 구도는 경제, 환경, 인간 각각에서 갈등해야 할 것을 숨길 뿐이다.

설령 계획대로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달라질까?
그리로 출퇴근할, 대부분이 비정규직일 노동자의 삶에 바다를 땅으로 만든
기록이 위로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새만금은 다시 민주주의를 질문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평등하게 살아갈
것인가. '지방'이 실패가 예정된 개발의 덫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이 서로 기대며 살아갈 조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새만금을 이제 탈출하자. 927기후정의행진이
제안하듯,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민주주의로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큰뒷부리도요를 앞세운 '새,사람행진'이 서울로 오고 있다.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9월5일
남태령을 함께 넘자고 제안한다. 갈등하지 못했던 것들이 갈등할 수 있게
된 장소, 법의 규격을 넘어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를 상상하게 한 장소. 새와
사람이 함께 넘어 좋을 고개다.

큰뒷부리도요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 있더라도 더 멀리 나는 기록은
아닐 듯하다. 주어진 몸으로 무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그저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렇다면 큰뒷부리도요에게, 날지도 못하는 인간은 무얼 자랑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공항이나 바다를 막아 지도를 바꾸는 일은 아니다. 나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멈출 거라고.



수라갯벌 새들, 남태령도 넘어갑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사람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수라갯벌의 새들이 되어 전북에서 서울까지 걷기로 했다. 행진단의 이름은 '새,사람행진단'.

큰뒷부리도요새는 서식지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출발해 번식지인 알래스카·시베리아까지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를 종단하는 도요새과의 철새다. 번식과 서식을 위해 1만3000km를 비행하는 여정에서 큰뒷부리도요새가 단 한 번 쉬는 중간 기착지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서해갯벌이다.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수라갯벌도 그 쉼터 중 하나다.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수라갯벌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그동안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큰뒷부리도요새의 몸무게는 40%나 감소한다. 길고 두꺼우며 끝이 살짝 아래로 휘어진 주둥이는 갯벌 속 깊은 곳의 갯지렁이나 조개류를 파먹기 좋다. 큰뒷부리도요새는 수라갯벌에서 살을 찌워 번식지로 이동한다. 쇠제비갈매기, 황조롱이, 검은머리갈매기, 큰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금개구리, 저어새 등도 큰뒷부리도요새처럼 수라갯벌에서 쉬고 먹고 살을 찌운다.

이들의 쉼터에 들어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그 옆 군산공항은 2024년 적자 58억 원을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도 국토부의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투자액 대비 편익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으며 추진되었다. 하지만 잼버리 시작을 앞두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새만금신공항은 그대로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항 옆 공항, 새만금 사업에도 원형을 유지한 갯벌, 무안공항보다 더 높은 조류 충돌 위험... 이 같은 이유로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사람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수라갯벌의 새들이 되어 전북에서 서울까지 걷기로 했다. 행진단의 이름은 '새,사람행진단'. 큰뒷부리도요새의 탈을 쓰고 이 행진단을 이끄는 평화바람 활동가 딸기(활동명)씨는 "사람들은 이미 이 싸움은 끝난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해볼 만한 싸움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8월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한 '새,사람행진단'은 9월 5일 남태령을 넘어갈 계획이다. 형형색색 새 모형 모자를 쓴 행진단원들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때 다들 오셔서 새만금 새들과 함께 남태령을 넘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정현 신부가 검은머리물떼새 모자를 쓰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기후 재난의 시대... 자연과 인간은 서로 연결, 서로 돌보며 살아야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 경기지역 7일간의 행보

지난달 12일 전주를 출발한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이 한 달간 260km를 걸어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까지 나아간다.

경기지역 행진은 지난달 30일 성환역을 시작으로 5일 서울 이수역까지 7일간 진행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산하 산별·지역지부 간부와 조합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진보정당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새,사람행진단'이 행진에 나선 것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수라곶별 보존과 신공항 백지화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재판부에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행진단은 맨 앞에 큰 뒷부리도요새 모형을 앞세우고, 참가자들은 수라곶별에서 살아가는 저어새·황조롱이·검은머리물떼새 등 새들의 모습을 본뜬 종이모자를 쓰고 행진했다. 행진단은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며 무더위와 빗속에서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던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최소 600배 높아, 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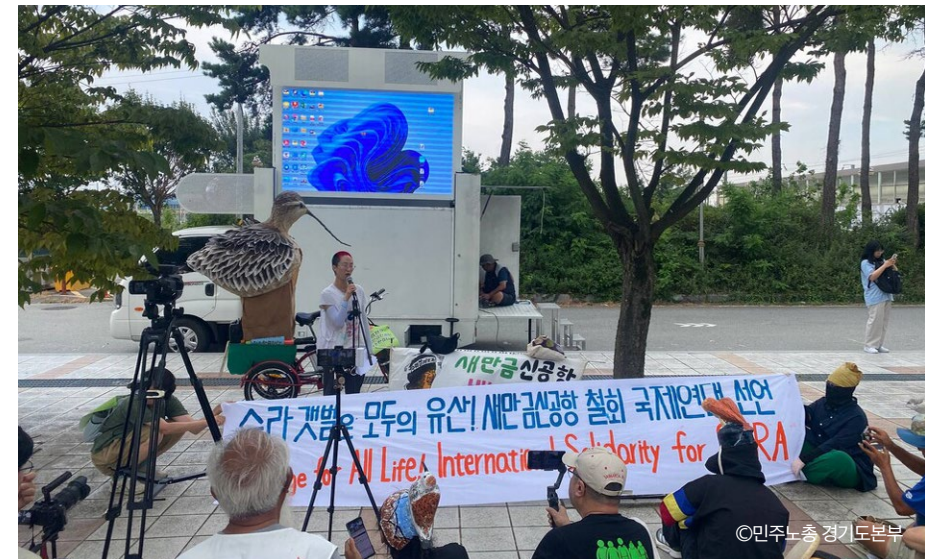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가 기준을 임의로 축소·변경해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진단은 국토부를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는 즉각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갯벌이 사라지면 수많은 새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재도 심각한 기후 붕괴와 생태 다양성 위기를 가져올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행진단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행진은 8월 30일 1일차 성환역에서 평택시청까지 이어졌고, 8월 31일 2일차에는 평택역에서 진위역까지 행진하며 ‘국제연대의 날’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열었다. 9월 1일 하루 휴식을 가진 후, 9월 2일 3일차에는 진위역에서 병점성당까지, 9월 3일 4일차에는 병점역에서 울전동성당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가는 곳마다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평택시민사회단체는 묵밥과 옥수수粥, 화물연대 서경본부에서는 바나나, 아이스크림등을 간식으로 제공하였고 행진단이 가는 곳 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산하 지부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 주었다.

행진 중 거치게 되는 수원 군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수원 군공항도 이전이 아니라 폐쇄하자”고 외쳤다. 연일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함께했고 경기지역 곳곳을 지나갈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 행진단의 외침을 공감해 주었다.

참가자들은 ‘새,사람행진’을 통해 이 땅이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터전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 평화의 땅을 만들어 나갈 때 인간의 생존도 가능함을 행진 속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참가자들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와 더불어 다양한 생명과 종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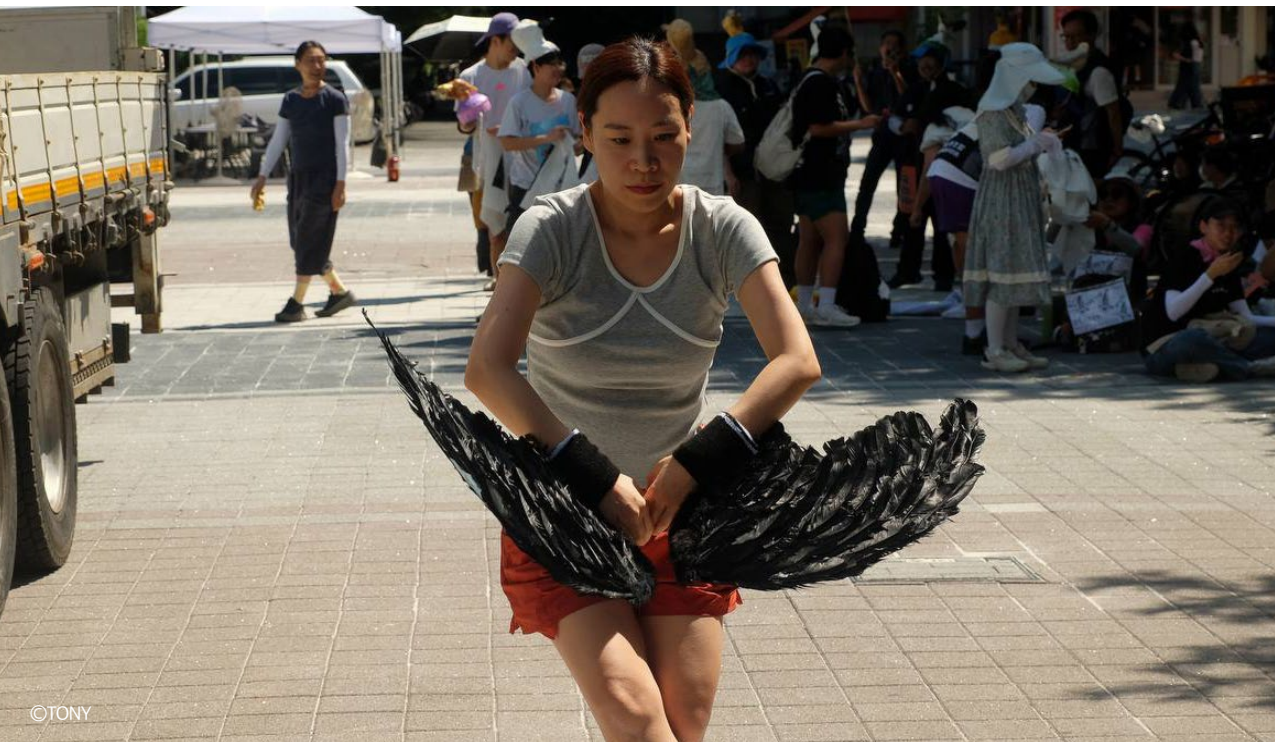




©sangfun

25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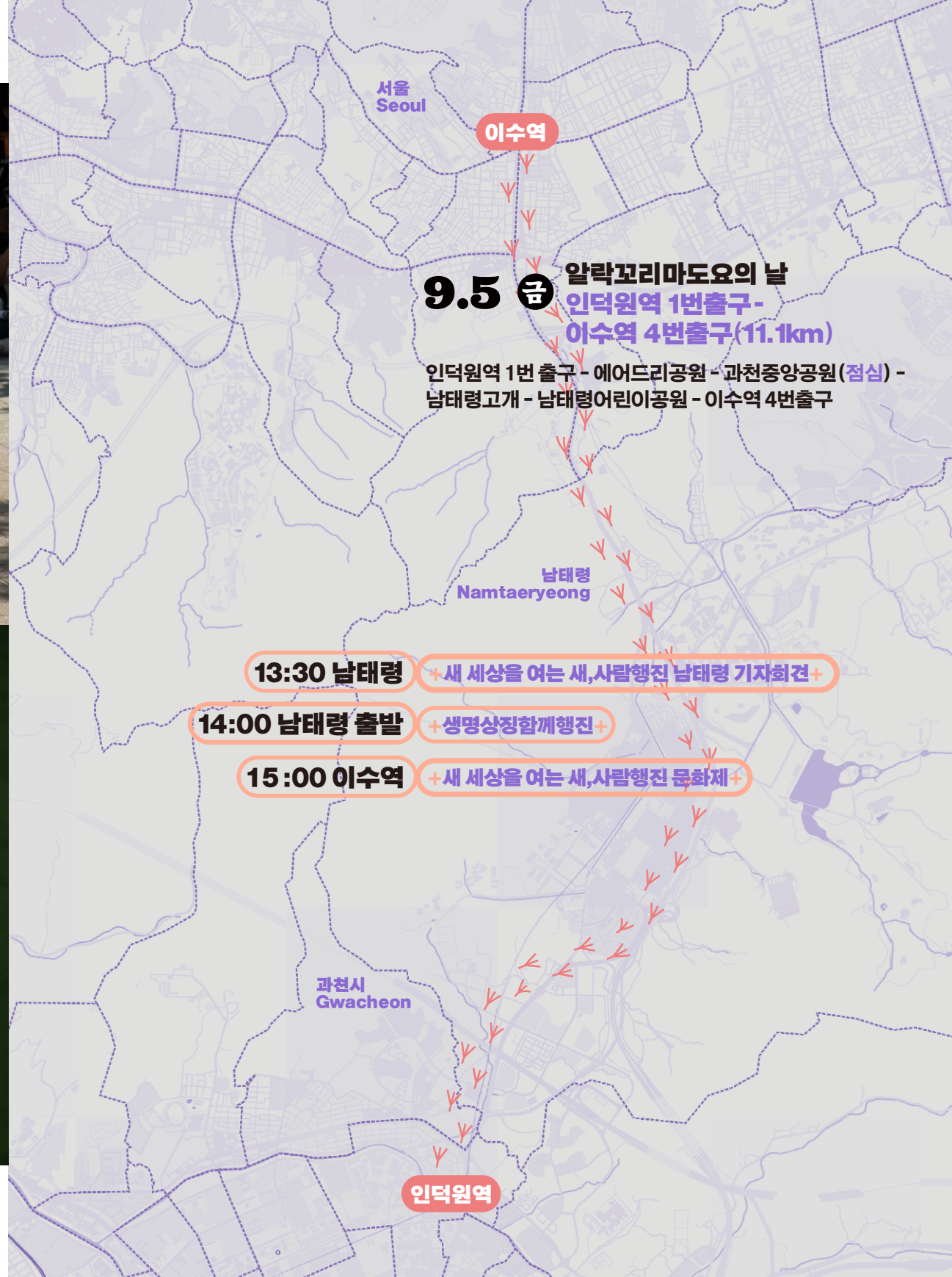
알락꼬리마도요의 날



©TONY



©TONY



알락꼬리마도요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알락꼬리마도요의 날입니다.

도요새는 종류가 무척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락꼬리마도요라면 다릅니다. 몸길이가 60cm 내외로 도요새중 가장
크고 부리는 아래로 휘어졌는데, 그 길이가 머리 길이의 3배 정도입니다.
마도요와 알락꼬리마도요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알락꼬리마도요는 꼬리부분이 알록달록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줄무늬가 이들의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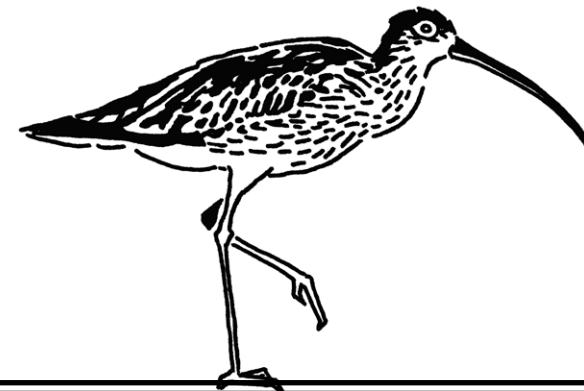
전세계에서 2만개체 정도만 서식하고 있어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호수에 서식하며 번식을 위해 시베리아까지
긴 여행을 합니다. 보통 1만km를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뒷부리도요처럼 장거리비행에 능숙한 담대한 새가 알락꼬리마도요입니다.

시베리아로 향하는 긴 여행 중 잠시 쉬어가는 곳이 서해안의 갯벌입니다.
한국은 전체 알락꼬리마도요 중 1/4이 거쳐가는 주요 기착지 중 하나입니다.
갯벌에 도착한 알락꼬리마도요는 긴 부리로 갯벌 속에 있는 계를 잡아
먹습니다. 새의 부리는 촉각이 뛰어나 갯벌 속에 있는 먹이도 놓치지 않고
사냥할 수 있습니다. 긴 다리로 갯벌을 거닐다 긴 부리로 먹이를 낚아 채는
모습은 종종종 달려나가는 작은 크기의 도요새들과 달리 여유롭기만 합니다.

알락꼬리마도요가 멸종위기종이 된 까닭은 중간기착지인 서해안 갯벌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여행 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보충이
이뤄져야 시베리아에서 번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기착지인
서해안은 새만금 방조제, 시화방조제, 인천국제공항매립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거나 파괴되면서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철새들은 아직 살아남은 수라갯벌로 열심히 날아듭니다. 굶주리고 지친
새들이 간신히 쉴 수 있었던 수라갯벌마저 사라진다면 장거리 비행 철새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들이 살 수 없는 곳에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을 굶겨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는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법원에 호소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수라갯벌을 찾는 위대한 철새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본의
이윤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사라져간 못 생명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자본말고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을 재판부가 앞당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알록달록함을 뽐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법은 반드시 큰뒷부리도요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며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걷고 있는 새, 사람행진단입니다.

지난 8월 12일 전주를 출발해 수라갯벌을 거쳐 금강을 따라 서천, 부여, 공주, 세종을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개발로 숲과 나무가 잘려나가고 처참하게 파괴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30-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의 아스팔트 바닥에서 말라 비틀어진 수 많은 생명들을 봤습니다.

금강은 흘러 서해바다로 나가 갯벌이 형성되고 못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하는데, 곳곳을 독으로 막아 강물이 흐르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종보에서 보를 철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못생명이 우글대듯, 뜨겁게 맞아주는 세종보 지킴이들이 우글대는 동지애로 생명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길을 따라 우리는 매일 아침 수라에 살고있는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수라의 외침>을 생각하며 큰뒷부리도요 뒤를 따라 걷습니다. 점점 더워진 열기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걷고 있지만 음악에 맞춰 춤추고 깃발을 흔들며 경쾌하고 즐겁게 걸었습니다.

때론 팔레스타인 해방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었습니다. 고공농성중인 구미 오퍼칼 박정혜동지와 함께 하기 위해 구미로 향했습니다. 새들처럼 누구도 듣지 않는 고공노동자의 외침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문정현신부님의 서각기도는 길 위에서도 계속 됐습니다. 수라에 살아가는 못생명을 하나하나 새기며 함께 하셨고 행진단에게는 든든한 버팀목 이셨습니다.

그리고 23개국의 세계 시민으로부터 수라갯벌은 지구적 유산으로 평화,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감동의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큰뒷부리도요가 뉴질랜드에서 새만금을 거쳐 알래스카까지 날아가 새끼를 낳고 논스톱으로 뉴질랜드까지 날아가듯이 멀리 떨어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텔레파시 연대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수원 병점에서 출발할 무렵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굉음소리를 내며 우리 머리 위에서 전투기가 전쟁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산미군기지에서 듣고있는 전투기 폭음이 수도권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는 군공항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폐쇄가 아니라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가 시화호로 몸살을 앓다 이제 겨우 회복 중에 있는 화성 습지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는 개발독재의 민낯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굴하지 않고,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해
활동하는 동지들과 3일을 함께 견고 함께 먹으며 동병상련의 사랑고개를
영차영차 함께 넘었습니다.

전주를 떠난 우리는 길에서 많은 동지들을 만났고 함께 걸으며 춤추며
노래하며 생명, 연대, 사랑의 고개를 넘어 이곳 남태령고개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시민들의 연대가 모여 함께 광장을
열었던 곳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아직 뜨겁게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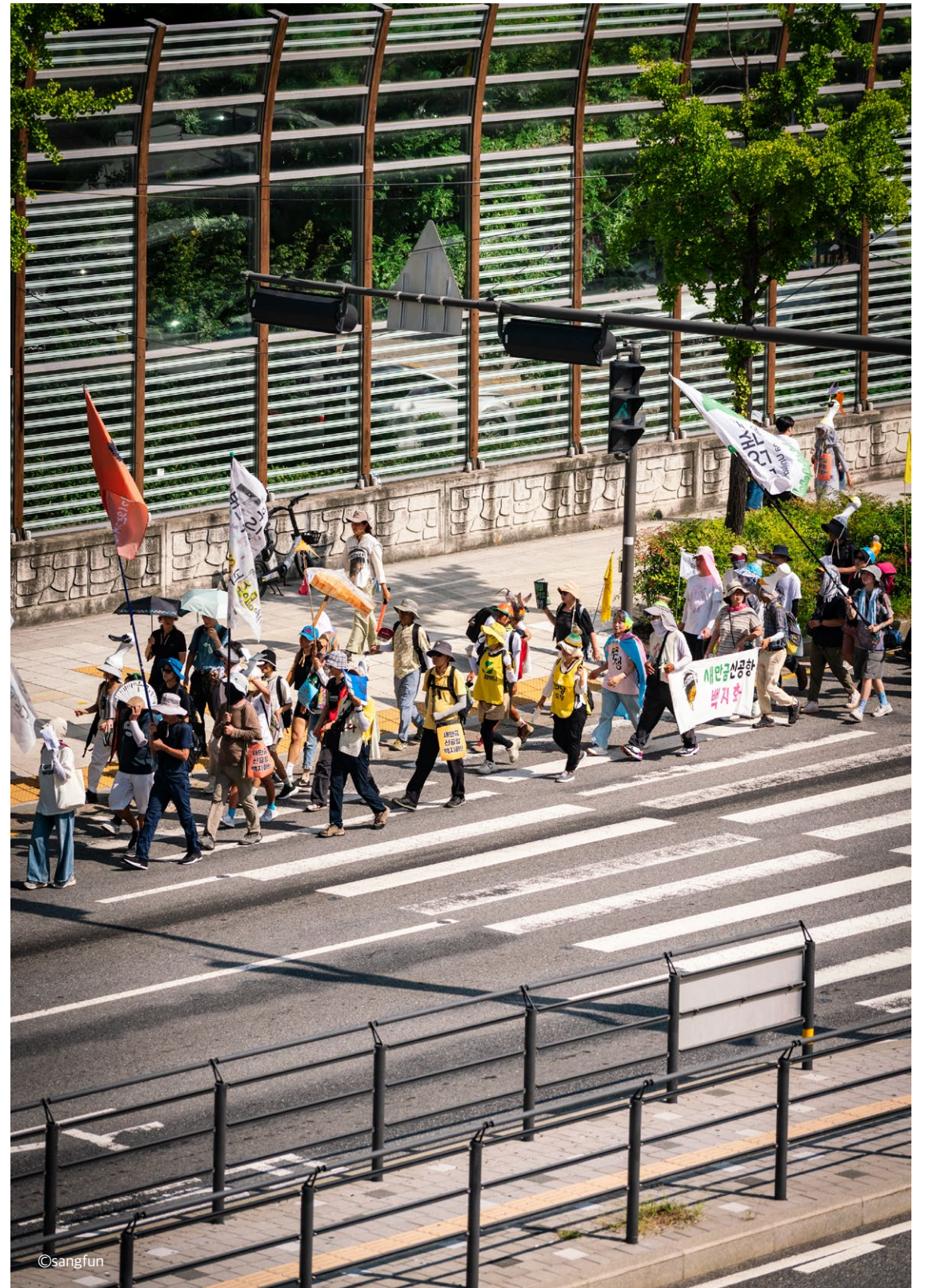
우리는 출발점에서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떠나 왔지만 도착점인 이곳 남태령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은 반드시 큰뒷부리도요를 지켜야 한다!"고.

그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하라!





우리시대의 법은 수라갯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며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수라갯벌의 못 생명과 함께 걷고 있는 새, 사람행진단입니다. 전주를 출발해 서울까지 오는 발걸음 앞에 숲과 나무가 잘려나가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말라 비틀어진 수 많은 생명들을 봤습니다. 새만금 갯벌에서 죽어간 조개와 새들, 저서생물과 염생식물들처럼 곳곳에서 개발로 처참히 파괴된 현장들을 목격했습니다.

새만금개발은 지난 30년간 개발과 성장의 환상을 말해왔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개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개발의 이익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보다 더 크다며 새만금 개발을 지속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계획 대로라면 이미 끝났어야 할 새만금 개발계획은 2050년까지 연장됐고 새만금호의 수질 역시 4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은 보호되지 못한 채 말라버린 갯벌에서 죽어갔습니다.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살던 어민공동체 역시 해체됐습니다.

2006년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우리는 수라 갯벌을 지키기 위해 260km를 걸어 서울행정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라갯벌은 군산 새만금 만경수역에 유일하게 남은 갯벌입니다.

새만금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못 생명들이 수라갯벌에서 살아남았고 법정보호종만 64종이 살아가는 생명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정부는 수라갯벌을 매립해 새만금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미공군기지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집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고 미군기지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위험도가 650배 높다고 평가되고 있어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정부는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후재난 시대에 위협천만한 새만금 신공항을 기어코 짓겠다고 말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갯벌 그 속에 살아가는 못 생명들을 언제든지 인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의 이윤을 중심에 둔 개발과 성장중심 정책을 우리는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수 많은 땅과 강이, 산과 바다가 그리고 갯벌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파괴되어 왔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 생태계 공동의 구성원이지만 개발주의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연결을 해체하고 생태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후재난으로 우리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새, 사람행진단은 오늘 남태령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시민들의 연대가 모여 함께 광장을 열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탄핵의 광장에서 윤석열정권의 비밀주의, 권위주의, 권력남용에 맞서 민주주의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아직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뤄진 차별없는 세상, 자연과 못생명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일회용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세상, 경쟁이 아닌 돌봄과 연결의 세상.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 될 것입니다. 법은 양심의 잣대로 시대의 정의를 선포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누구를 보호해 왔습니까. 국가의 개발과 성장중심 정책 앞에서 법은 죽어가는 생명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인 적이 있었습니까.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개발독재를 종식해 주십시오.

법원은 기후재난의 시대에 걸맞는 정책적 전환을 선포해 주십시오.

법원은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못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에 주목해 주십시오.

새,사람행진단은 수라갯벌의 못 생명들과 함께 정의로운 법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자본의 이윤이 생명보다 앞서있던 시대가 가고 생명과 사랑이 앞장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동료시민들과 함께 새,사람행진단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조류충돌 참사와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새만금신공항을 중단하라.

하나.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로 개발중심 사회의 종식을 선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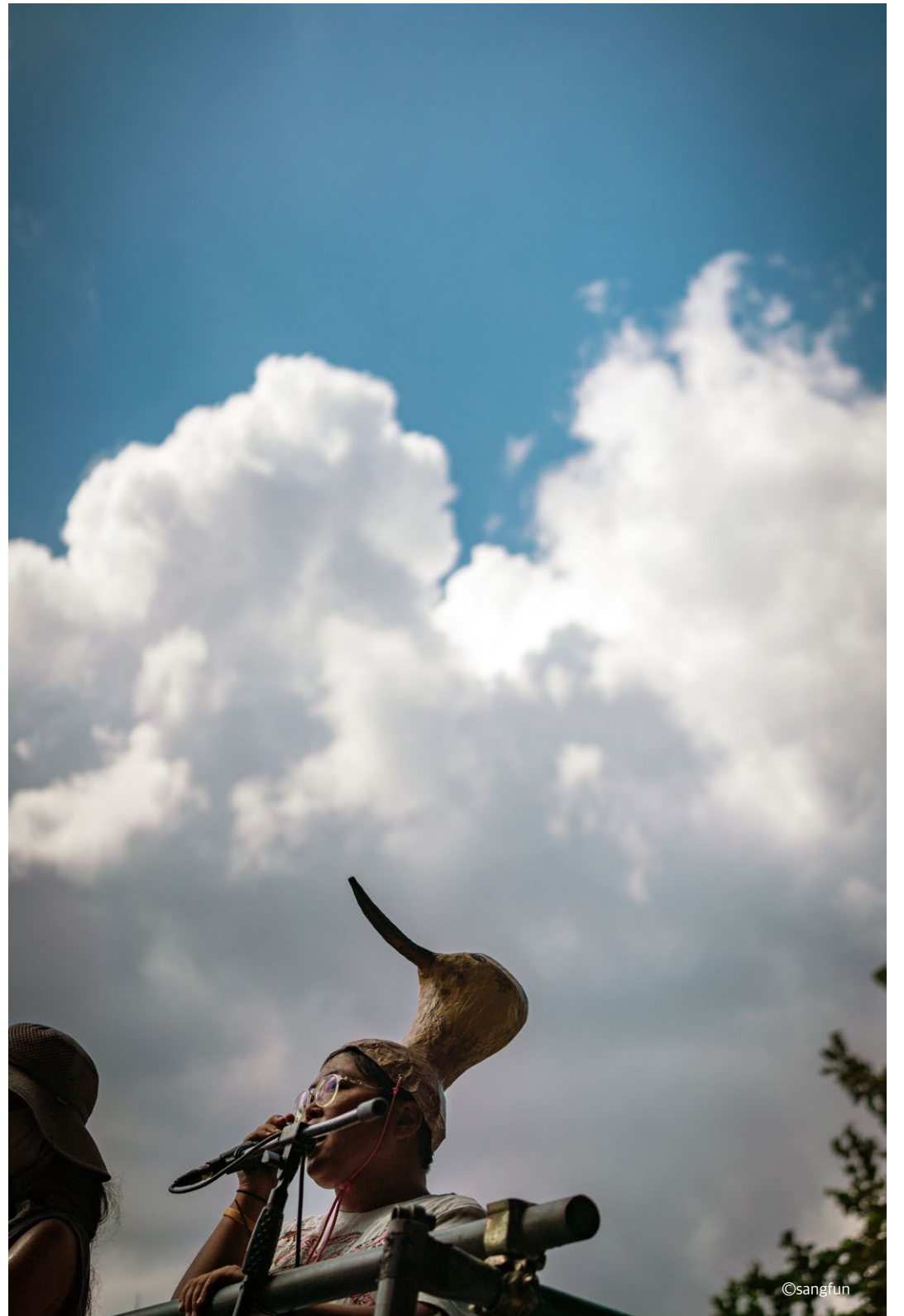
하나. 자본의 이윤이 최우선 되는 시대를 넘어 생명과 사랑의 새 세상을 만들자.

하나. 지구 공동체의 모든 존재들과 공존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

2025년 9월 5일 남태령에서

새,사람행진단







도요새도
고라니도
함께 넘자,
함께 살자



©sangfun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내가 오늘 양치질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나서, 칫솔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만져보고 판별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그런 내가 10여 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사진이 있다. 수천 수만 마리 물고기들이 흰배를 내놓고 떼로 죽어간 사진. 4대강 사업 때 공사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여러 번 변주되며 반복되었을 법한 그 물고기 떼죽음의 사진이 내게 왜 새삼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그 때 나는 비로소 생각해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4대강 곳곳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죽어가더라도 사업에는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겠구나. 얼마나 죽거나 다치든, 정책 의사결정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겠구나. 그 수가 세어지지조차 않겠구나. 이렇게 사진을 통해나마 못 봤다면 아예 모른 채 지나쳤겠구나. 나는 그때 이 사회의 철저한 인간중심성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인간이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얼마나 죽고 고초를 겪든 서부전선 이상없이 발전의 열차는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후 15년이 흘러 2025년 9월 5일 남태령에는, 열목어가 헤엄쳤다. 검은머리물떼새가, 검은머리갈매기가, 큰뒷부리도요가 날았다. 게가 걸었다. 고동이 길을 갔다. 이들 하나하나가 의미있다고, 의미를 가져야한다고 외치는 인간들이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 걸었다. 전주의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의 수라갯벌을 지나 서천에서부터 25일을 걸어온 새,사람행진단이 남태령을 넘었다.

남태령, 2024년 12월 21일, 공주 우금티에서부터 3일간 서울로 달려온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경찰의 차벽에 막히고 진압당했던 곳,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농민들의 손을 잡았던 곳, 각자가 품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함께 길고 춥던 겨울밤을 났던 곳, 이들을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가세하며 결국은 차벽이 열리고 함께 넘었던 고개.

남태령은 새사람행진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시민들이 법의 통제를 뚫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지켜낸 곳"에서 "그 시민들의 힘으로 법이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로 큰뒷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게 함께 행진"하자며, 큰뒷부리도요가 외롭지 않도록 각자가 집에서 만든 생명 상징물을 들고 만나자 했다. 1-2주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고, 언제부턴가 내 귀에는 9월 5일 남태령에서 만나요. 남태령에서 만나요. 라는 홍보 멘트가 귀에서 웅웅 땀돌았다. 남태령에 얼마나 모일까, 가 언제부터인가 관심사가 되었다. 누구는 100인이 모일거라 하고, 누구는 200인, 누구는 500인, 누구는 150인, 누구는 300인...예측은 사방으로 갈라졌다.

바로 그 남태령의 날인 9월 5일, 인덕원역에서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지하철역 출구에서부터 흥진단(행진단의 흥을 담당하는 결사팀으로, '흥'진단으로 불리우며 땀스가 젖도록 행진하며 몸을 흔들고 환호하고 있다)의 환영을 받으며 속속 행진대열에 합류했다. 출발할 때는 150인 정도였던 대열이, 출발해 가는 길에 시시각각 불어난다. 큰뒷부리도요를 자전거에 태우고 행진의 앞에서 길을 가는 내 시야로 웃는 얼굴들이 자꾸 나타난다. 반갑게, 수줍게 손을 흔들며 누구는 깃발을 들고, 행진으로 결합한다. 그렇게 한 시간을 갔을까, 쉬는 장소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다른 흥의 강자들인 풍물놀이패 '팽수' 팀(군산 하제의 팡나무를 지키는 수선스러운 풍물패라 해서 '팽수'라 불림)도 풍물을 치며 맞아준다.

그렇게 모인 300여 명이 남태령을 향하는 길은 팽수의 타령으로 흥성거렸다.

넘자 넘자 남태령 고개를 넘자
 넘자 넘자 도요새 함께 넘자
 넘자 넘자 고라니 함께 넘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남태령 고개를 넘자

열자 열자 새새상 함께 열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새새상 함께 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새새상 함께 열자
 살자 살자 함께 살자 수라에서 함께 살자

도요새 함께 넘자, 고라니 함께 넘자하는 대목에서 울컥 눈물이 났다. 항상 당연히 인간의 뒤꼍 배경에 있었던 이들이 이제야 우리 전면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토록 인간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넘어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노래로, 상징물로, 사람들의 인식으로, 사람들의 세계로 그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 싶어서. 여전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순간, 그들과 함께 살자며 9월인데도 여전히 여름인 날씨에 띄약별 아스팔트를 함께 걷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여.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너무도 긴 여름을 겪으면서, 평생 처음 보는 큰 비를 겪으면서, 너무도 잦은 산불을 겪게 되면서였을까. 매일같이 울리는 재난경보문자를 받게 되면서였을까. 아이러니하게 지금까지의 역사 중 인간이 가장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이때에, 인간은 인간이 초래한 위기를 여느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겪게 되었다.

그 중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있다. 남태령 다음날인 9월 6일에는 새사람행진에 그 유가족이 함께 걸었다. 179명이 한순간 세상을 떠난 참사가 일어난지 250여 일이 지난 지금도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용산 대통령실과 전남경찰청, 전남도청, 광주시청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고재승님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류충돌이었고, 주변에 철새서식지가 4곳이었던 무안공항은 "잘못된 곳에 잘못 지어진 공항"이었다며, 참사는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바로잡지 못해 일어났다고 말했다(9월 8일 새사람행진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발언). "또 몇 명의 희생자와 수천명의 유가족이 생겨야 멈추시겠습니까"라며, 수라갯벌에 새만금신공항이 지어져선 안된다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남영호님은 "유가족은 저희 하나로 끝나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9월 6일,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비행기와 충돌하는 새들의 죽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간의 개발에서 필연적인 작은 부작용이었다.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지 해왔던 무수한 죽음들. 그럼 그 죽음들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나? 참사가 일어나고 보니, 이를 당한 인간도 새들과 비슷하게 취급이 된다. 그 끔찍한 사고가, 진상 규명조차 명확히 되지 않고 빠르게 뒤편으로 밀려난다. 갈무리할 수 없는 슬픔을 안은 유가족들이 기어이 거리로 나오도록 한다.

무엇이 얼마나 죽고 고초를 겪든 발전의 열차는 달려나간다고 할 때, 그 '무엇'에는 인간들도 포함된다. 자연을 편리하게 착취하는 사회에서는 신기하게 인간도 자연처럼 착취당한다. 발전을 위해서,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밀치고 밟고 뽑아내는게 당연한 논리에서 인간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낸 것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위기다. 인간이 만든 이 위기, 인간이든 인간 아닌 것이든 함께 휩쓸리게 된 이 위기에서, 종종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기후변화 때문에 2050년이면 지구는 다 망하지 않을까.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 수 없는 이때, 함께 살자는 것은, 우리가 밀치고 밟아왔던 존재들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겨울을 보내고 날아온 한국에서 봄을 나고, 알래스카로 가서 번식을 하고는 다시 뉴질랜드와 호주로 날아간다. 이들은 어떻게 1만km가 넘는 여정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막막한 하늘에서도 자신의 길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인간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는 알 수 있다.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들을 따라가면 육지가 나올 거라는 것. 실제로 뉴질랜드의 황아누이 쿠아카 부족 공동체는 자신들이 이 큰뒷부리도요를 따라 그 땅에 왔다고, 자신들이 죽으면 큰뒷부리도요를 따라 길을 갈 것이라고 믿는다.

남태평양에서, 사람들은 멸종된 동식물들이 그려진 판넬을 들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마지막으로 관찰되고 보이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식물들. 채 알기도 전에, 한 번 보기도 전에 사라진 그들 아래에는 각국의 언어로, 동지, 라고 새겨져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켜줄 대상이라기보다는, 동지라는 것.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우리의 동지라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간이 절대 하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길을 찾지 못할 때 이정표를 안내할 수 있는, 우리의 아주 낮은 동지들이라는 것.

남태령에서 행진단장 완두는 말했다.

"우리는 출발점에서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떠나왔지만, 도착점인 이곳 남태령에서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어야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그것은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그 '민'에 큰뒷부리도요를 포함한 낮익고 낯설은 존재들이 풍요롭게 들어설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그래야 홀로만 '민'인 줄 알았던 인간도 살 수 있다. 또 한번 확장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새사람행진단은 남태령을 넘었다. 그럼에도 세종보 철거농성장의 임도훈 활동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줌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공항 말고 갯벌을 외치는 것은 이 사회의 소수로 보인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한다. 어차피 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긴, 문정현 신부님은 평생 지는 싸움만 해왔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 누가 질 싸움을 하고 싶을 것인가. 게다가 나는 지든 이기든 싸움은 잘 안하려는 타입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이렇게 질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심정을. 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혹시나 1프로, 혹시나 0.0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혹시나 붙잡을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간절함. 수라갯벌에서 만난 간절한 이들을 보면서 나는 다른 현장의 간절함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혹은 자신과 연결된 이들의 전부와 같은 땅과 삶을 지키려는 심정을, 이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새사람행진에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 '삼보일배'. 2003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막아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며 부안의 해창갯벌에서부터 서울까지 갔던 4대종단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폭염이니 외출과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따뜻한 권고가 연일 계속되는 이때 행진을 하며 때로 덤고 힘들어 투정을 좀 시작할라칠때, '삼보일배' 단어가 나오면 모두 조개처럼 입을 닫게 된다. 아, 그때 생각하면 힘들다는 말

못하지. 암암. 어쩌면 질것을 알면서도 갔던 그 고행의 길과 정신은, 새만금 방조제가 막힌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새만금을 찾아 관찰하며 수라갯벌 같은 생명의 틈자리를 발견하고 넓혀왔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으로, 그리고 수라갯벌에 대한 지금의 연대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 새사람행진단을 비롯한 - 로 이어졌다.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삶은 강이 길을 가듯 끝이 없이 흘러 이어진다. 지는 싸움에 몸을 던지는 이들, 그들을 보고 주저하던 발걸음을 돌려오는 이들, 그들의 옆에 그저 있어주려고 오는 이들로 강은 물길을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갯벌을, 바다를 만날 것이다. 못생명들이 우글대는.





우리는 비인간 ‘동지’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남태령을 넘었다.

어제 ‘새, 사람행진’의 또 강렬했던 순간은 ‘남태령 고개’를 넘기 직전 요나스 스탈의 작품 <멸종 전쟁(Extinction Wars)> 그림들이 트럭에서 내려져 거리에 풀리고 투쟁하는 이들의 손에 들릴 때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네덜란드관에 설치되었던 작품이고,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에도 소개되었다. ‘기후 재판소’를 미술관에 열고 증인으로 사안을 쫓는 단체와 활동가들, 배심원으로 관객을 초대했던 작품이다. 설치에 포함된 이 그림은 석탄산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이 그려져 있고 ‘동지’라는 말이 각국의 언어로 적혀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활동가들이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한국의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군사주의 상황을 알렸고, 국가가 대기업들과 결탁해 자행한 기후범죄를 기소하는 공판이 이루어진 정치적인 작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작업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스펙터클한 재난의 재현과 서구 유명 프로젝트에 치우친 소개가 불편한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언론보도를 다시 보니 전시를 소개할 때 구체적인 국내 기업 이름이나 사안을 다소 추상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 정도로 뭉뚱그린 측면이 있었다. 또 유명 작가의 이름은 대대적으로 노출되었지만 이 작가가 여기서 어떤 참여한 사안에 집중했고 또 맞서 싸우는 어떤 이들을 초대했는지는 다소 간략하게 노출되었다.

어제 요나스 스탈의 작업을 거리에서 만나고 오랜만에 작업에 대한 내용도 다시 살펴 보았다. 작가의 설치는 법정, 하나의 무대이고 이 안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그저 연계 행사 정도가 아니라 메인 서사가 된다. 증인인 활동가들이 맡은 역할은 이 무대를 이끌고 가는 주연배우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법정은 미군 기지 확장을 지원하며, 광범위한 간척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훼손한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를 기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자리에 초대된 증인이 ‘새만금 시민 생태 조사단’, ‘군산기후우리땅찾기시민모임’ 그리고 ‘평화바람’이었다. 요나스 스탈은 그들에게 무대에 설치된 작품을 보내준 것이다.

(참고로 두 번째 법정은 한화를 상대로 군사 무기 사용과 제조와 거래로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고발하는 재판이 열렸고 증인은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세 번째는 두산과 포스코 그룹을 상대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고소하고, 청년기후긴급행동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를 초대했다. 네덜란드 현지 보도자료에는 세 번의 행사에 ‘범인’이 타이틀로 크게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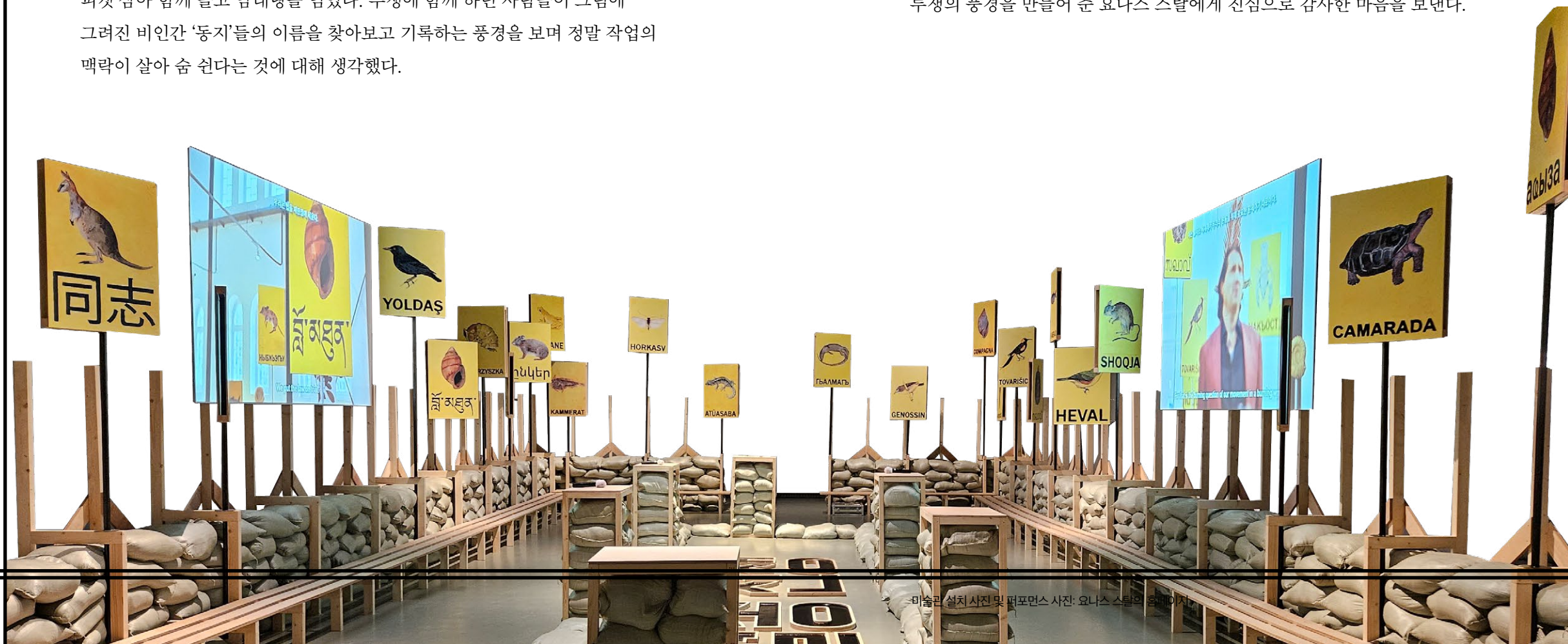
우리는 비인간 ‘동지’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남태령을 넘었다. 나는 우연히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이 병의 주적으로 여겨지며 혐오의 시선을 받은 박쥐를 들었다. 아마도 황금빛과일박쥐로 추정되는데, 사람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과일을 먹는 초식성이라 과거 식용으로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고 또 숲이 파괴되면서 서식지를 잃어간 동지다.



이 작업은 사진이나 판화도 아닌 오리지널 에디션이 하나인 회화작품이다. 다소 무겁긴 했지만 설치했던 사진을 보니 그나마 무게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위해 프레임도 제거된 상태였다. 그림이 그려진 판만 차곡차곡 쌓여 작품 운송 전문 차량이 아닌 연대 트럭으로 남태평양까지 왔다.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땀 뻘뻘 흘린 손으로 그것을 잡고 안았다. 그때 묘한 쾌감이 있었다. 게다가 예술계는 요즘 어떤 시즌인가. 프리즈에 맞춰 업계의 세계적 네임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국공립 미술관을 포함해 온갖 예술 공간은 앞다퉈 대규모 전시와 행사를 마련하고 아트위크라 명명하며 들쭉이는 그런 시즌이란 말이다. 남태평양을 넘으면 행사가 열리는 핵심부 강남에 도달한다. 프리즈에 바로 걸려있어도 전혀 손색없을 커리어를 가진 작가의 주요 작품이 지금 이 길바닥 투쟁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을 피켓 삼아 함께 들고 남태평양을 넘었다. 투쟁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림에 그려진 비인간 '동지'들의 이름을 찾아보고 기록하는 풍경을 보며 정말 작업의 맥락이 살아 숨 쉰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사회적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작업도 상업적 시스템에 합류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싶다. 다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학살에 공모하고 있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거대 행사들, 정부와 결탁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고 있는 회사가 국공립 미술관을 후원하는 일 심지어 시온주의자 작가를 전시에 대대적으로 초대하고 같은 재단 소속 예술대학에 특강까지 보낸 사립 예술재단까지, 여전히 자본과 시스템과 거대한 권력들은 투쟁의 목소리를 재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요나스 스탈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한다. 멋진 투쟁의 풍경을 만들어 준 요나스 스탈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보낸다.



미술관 설치 사진 및 퍼포먼스 사진: 요나스 스탈의 *동지*



©sangfun



©sangfun



©이재각



큰뒷부리도요와 인간, 수라갯벌 평화 위해 함께 남태령 넘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구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결과 광대한 갯벌이 사라진 뒤 유일하게 살아남은 갯벌이다. 이 수라갯벌마저 정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민들은 수라갯벌을 지키고자 장장 한 달간 이어진 행진을 시작했다. 그 행진엔 수라갯벌에서 살아가는 새들도 함께한다. 새,사람은 함께 남태령을 넘어 서울로 진입했다.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달 12일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한 '새,사람행진'을 시작했다.

'새,사람행진단(행진단)'은 법원 측에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며, 전주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장장 260km에 걸친 한 달간의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진 과정에서 수라갯벌 및 충남 서천갯벌을 지났고, 1894년 동학농민군에게 통한의 눈물을 안긴 충남 공주 우금티 고개를 넘었으며, 4대강 재자연화 목소리를 내고자 세종보에 들렀다. 이어 천안·평택·수원을 지난 행진단은 5일 오전 서울 바로 남쪽인 경기도 과천시에 당도했다.

폭염을 무릅쓰고 머나먼 길을 걸어온 행진단에게 5일 일정은 특히 남달랐다. 5일 오후, 점심식사 뒤 과천중앙공원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서울로 들어서는

남쪽 관문 격인 남태령에 당도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농민·시민이 함께 거둔 '남태령 대첩'을 통해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남태령 고개를 넘으며, '새,사람행진단'은 더욱 힘차게 "새,사람, 함께 살자", "생태학살 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대중국 전쟁기지 신공항 확장 반대한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단은 왜 '전쟁위협'과 '(수라갯벌의) 대중국 전쟁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까? 이미 존재하는 군산공항 자체도 수요가 낮고, 그나마 존재하던 항공편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북도민 입장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을 굳이 건설한다는 건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미 공군을 위한 기지 확장 이외의 이유론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수라갯벌 바로 뒤편에 존재하는 미군 공군기지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철저히 써먹는 중이다. 최근 미국은 핵심 전략자산(북·중국 등을



견제·압박하거나 유사시 공격하는 데 사용할 첨단무기)인 F-35 전투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이 전투기들이 외부(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징)로부터 공격받을 상황을 대비해 격납고까지 더 튼튼하게 새로 지었다. 그 자체가 언제든지 중국과의 전쟁을 고려 중이라는 신호다.

나아가, 미국은 오는 9월 중엔 ‘하늘의 암살자’란 별칭을 지닌 무인기 ‘MQ-9 리퍼’까지 군산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MQ-9 리퍼는 2020년 미국이 자신들의 ‘적성국’인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불법적으로 암살할 시 사용했던 수단이다. 이미 2018년 ‘기지 내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명목으로 기지 옆 하제마을 644세대 주민들이 이주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던 역사가 있건만, 이제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수라갯벌까지 전초기지로 내주는 ‘생태학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행진단의 생각이다.

5일 오후 남태령 고개를 넘을 때, 행진단은 수라갯벌에서 서식하는 새인 큰뒷부리도요의 모형을 자전거에 태워 행진단 앞쪽에서 ‘행진’하게 했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서해안 갯벌까지 1만km를 날아오는 새다. 행진단은 새만금신공항 확장으로 수라갯벌이 사라질 시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큰뒷부리도요는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행진단은 남태령 고개에서 잠시 멈춰, 지난해 12월 그곳에서 농민·시민이 꽃 피웠던 연대의 기억을 되새겼다. 행진단에 함께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류씨는 “지난 겨울 남태령엔 누구도 허기지지 않게 주먹밥을 건네준 사람들, 따뜻한 물을 건네며 온기를 전한 사람들, 남들 앞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한 서러운 경험을 꺼내며 함께 있는 모두를 위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때 우리는 경찰의 차벽만 넘은 게 아니다. 윤석열만 없으면 그대로여도 괜찮은 이 사회의 권력을 넘으려 했고,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에만 있었던 법을 넘으려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었다”고 남태령 대첩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남태령 대첩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진에 함께한 이들 중엔 경기도 수원에서 함께 온 두 시민이 있었다. 이들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수라갯벌을 파괴하며 미군을 위한 기지를 확장하려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수라갯벌이 파괴되는 걸 어떻게든 막고자 이를 연속으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행진단도 남태령을 넘는 감회 및 앞으로의 결의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진단은 “정부는 수라갯벌을 매립해 새만금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한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진다. 새만금신공항은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고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도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 높다고 평가되고 있어,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행진단은 이어 △정부의 조류충돌 참사 및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새만금신공항 건설 중단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 통한 개발 중심 사회 종식 선포 △자본의 이윤이 최우선 되는 시대를 넘어 생명과 사랑의 새 세상 건설 △지구공동체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공존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날 오후, 큰뒷부리도요와 사람은 폭염을 이겨내며 기어이 남태령을 넘어 서울로 진입했다. 행진 대오 일부는 과거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학살’로 인해 멸종된 생물들의 그림이 그려진 노란 피켓을 든 채 행진했다. 그 생물들의 그림 아래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림으로 남은 그 ‘동지’들도, 지난 겨울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을 넘었던 ‘말벌 동지’들도, 큰뒷부리도요 등 수라갯벌의 못 생명과 함께 남태령을 넘었다. 이들의 행진은 오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질 서울행정법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알락꼬리마도요의 날, 뭇생명의 행진 남태령을 넘다.

350여 명의 행진단 풍물과 노래와 춤으로 어우러지며 “새 세상을 열자”

행진 25일차, 오늘은 새,사람행진단이 민주주의의 남태령 고개를 넘는 날. 오전 10시 인덕원 1번 출구역 바로 앞에 ‘홍진단’이 나와서서 깃발을 흔들며 출발지를 안내했다. (스스로의 흥을 주체 못하고 행진하는 내내 흥을 발산하여 기운을 돋는 자들, 그들을 ‘홍진단’이라 일컫는다) 많은 행진단이 곳곳에서 모였다. 서로의 흥과 기를 나누며 오늘의 수라의 외침 멸종위기종 ‘알락꼬리마도요’를 소개하고, 새로이 크게 특수제작된 행진차량을 앞세워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행진을 시작했다. 각각 손수 제작해 온 모자와 피켓이 예쁜 생명체들의 행진으로 넘실거렸다.

흥으로 무장된 ‘홍진단’은 신호대기에서도 육교에서도 행진단을 응원하며 실새없이 깃발과 춤과 노래로 응원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먹은 후 이제 행진단은 “열자열자 새 세상 함께 열자, 깃발을 흔들며 새 세상 함께 열자” 팽수 풍물패가 이끌었다.

행진단이 드디어 남태령에 도착했을 때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행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진단은 이 남태령에서 “지난 겨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시민들의 연대가 모여 함께 광장을 열었던 곳”이라며 “나중으로 미뤄진 차별없는 세상, 자연과 뭇생명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일회용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세상, 경쟁이 아닌 돌봄과 연결의 세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행진단은 “새만금국제신공항은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미공군기지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지는 것이며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고 미군기지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 높다고 평가되고 있어 또 다른 참사가 예고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400여 명의 새,사람행진단은 이제 남태령을 넘어 오늘의 종착지 이수역에 도착해 문화제를 진행했다. 한 행진단원은 25일 내내 걸으며 들었던 ‘난 바다야’를 라이브로 직접 듣는 호사를 누렸으며 감상을 전하기도 했다. 풍물과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한바탕 문화제를 끝으로 “새는 하늘로! 사람은 땅으로!”를 외치며 오늘의 행진을 마무리 했다.

서울의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행진단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9.8(월)부터 진행되는 새만금 신공항 취소판결 촉구 3일 미사와 종교인 기도회 일정을 안내했다.

9.6(토)은 동작대교 전망쉼터에서부터 경복궁역까지 행진한 후 15:00 생명지킴이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각









©TONY

250906

물수리의 날



©TONY



©TONY



경복궁

9.6 토 물수리의 날
 동작대교 전망쉼터 -
 경복궁역 4번출구(10km)

동작대교 전망쉼터 - 서빙고역 - 용산 전쟁기념관 (점심) -
 서울역 - 경복궁역 4번출구

15:00 경복궁역 4번출구 +생명지킴이대회+

용산
 Yongsan

동작대교

물수리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물수리의 날입니다.

물수리는 가을에서 봄까지 한국을 찾는 맹금류중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번식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강과 바다의 어류를
사냥하는데, 수라갯벌에선 송어를 잡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극동지방과 레바논과 북부 아프리카의 사막지방을 제외한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수리는 어류를 주로 사냥하기 때문에
강물이나 바닷물에서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오염된 어류를 사냥하기 쉬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2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 하구의 대규모 간척은
물수리의 개체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라갯벌에 가면 물수리 등의 맹금류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높은
숫대를 세워줬습니다. 숫대위 검은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을
겨울철에 본다면 물수리를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마우지들이 숫대에 앉아 한가롭게 깃털을 말리는 모습도 관찰되니 꼭
물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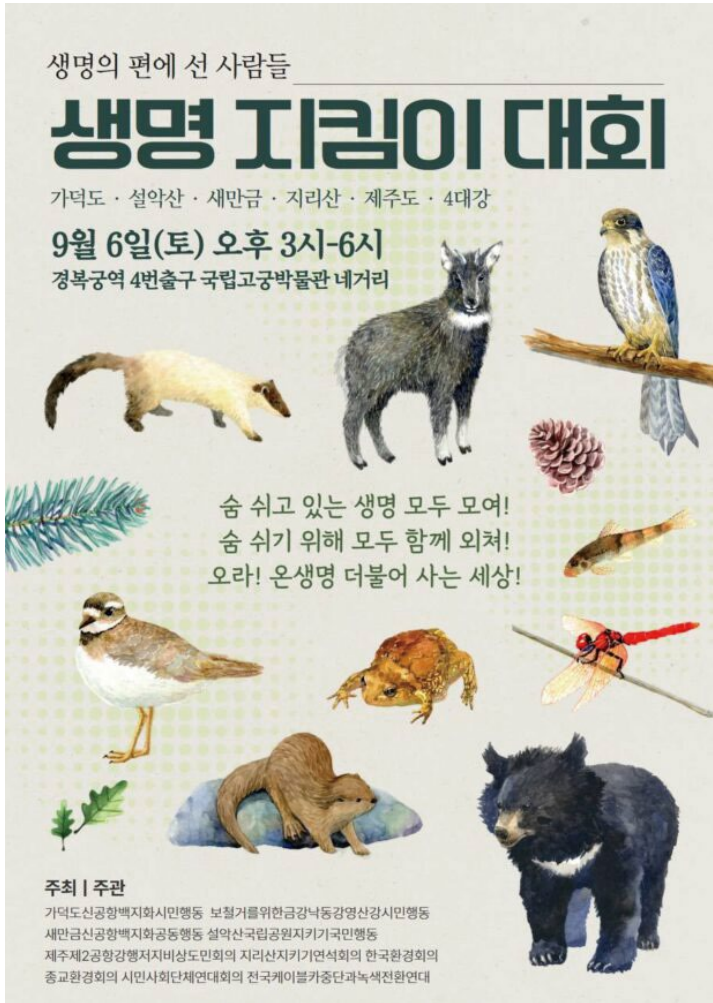
물수리의 영문 이름은 오스프리(OSPREY) 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군이
갖고 있는 헬기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미군의 오스프리 헬기는 추락사고가
빈번하기로 유명한 기종입니다. 물수리는 결코 추락하는 일이 없지만
전쟁에 투입될 명목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된 오스프리 헬기는 자꾸만
추락합니다.

군산미군기지에 작년에 오스프리헬기가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문과 집이
흔들리는 진동과 소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수리는 자연생태계에서 포식자로
존재하며 생태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지만 지붕위를 나는 오스프리 헬기는
언제 떨어질 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이기만 합니다.

많은 전투기들과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은 새들의 방식을 따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새들은 자연 생태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선순환 하고
있지만 전투기는 오직 생명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의 90%가 넘는 것이 군사부문이라 하니, 전쟁과 전쟁을
위한 연습 모두 기후재난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법원이 기후재난 시대가 도래한 오늘 정의로운 법의 판단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숙고하길 바랍니다. 물수리의 서식처인 수라갯벌을
파괴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기후위기의 주범에 대해서 침묵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물수리는 지키고 오스프리헬기와 같은
전쟁무기는 사라지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지킴이대회 함께 해요



'그깃 흰발농게 하나 때문에'
 '그깃 물떼새 하나 때문에'
 '그깃 산양 하나 때문에'
 '그깃 상괭이 하나 때문에'
 '그깃 반달가슴곰 하나 때문에'
 '그깃 나무 하나 때문에'

이 말들 뒤에는 '그깃 것들 보다 사람이, 성장이 중하지'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생명은 죽어도 된다는 야만이 당연하다는 듯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생명은 죽어도 된다는 그 끔찍한 강요가 결국은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죽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명과의 공존을 내팽개치고,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이라는 허구로 둔갑된 자본과 정치의 이득 아래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가덕도, 새만금 수라갯벌, 4대강, 설악산, 제주도, 지리산 등등. 우리나라 강과 산, 바다 곳곳에서 정부와 자본에 의한 생태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공항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산이 깎이고, 나무가 베어지고, 생명들이 학살당한 무덤에는 결국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4대강보, 설악산케이블카, 지리산 케이블카 등등 전국 곳곳의 생태학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 사람에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못 생명들의 생존과 존엄을 외치고자 모입니다.

생명은 그깃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이 아닌 생명, 착취가 아닌 공존을 원합니다. 소수 자본과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허구와 망상의 케이블카보다, 공항보다, 관광개발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흰발농게 하나 때문에' 무참한 생태학살 사업들이 폐기되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그 하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앞에 결국 우리는 모두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9월 6일(토) 오후 3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이재명 정부에 기후생태붕괴를 직시하고, 생태학살을 멈추라고 외칩시다. 공항 말고 생명! 케이블카 말고 생명! 자본 말고 생명!을 외칩시다. 당당히, 단호하게 생명의 편에 함께 서주세요.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서 생태 학살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4대강 ... 전국의 강과 산에서 개발로 인해 죽음에 내몰린 생명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생태 학살'의 참혹한 현실이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서 인간의 개발 이기주의로 위기에 내몰린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금은 개발이 우선이라고 보전은 나중에 하자며 복원을 약속했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우리는 세월을 상실했고, 복원 약속은 파괴되어 산산이 흩어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과 국립공원 규제완화 등 국토 파괴의 광풍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고있다.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서 행해진 생명학살과 국토파괴 행위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뒤바꿔놓았다. 이재명 정부 또한 성장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생명·생태 현장의 학살에 눈을 감고 있다.

지난 17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과학적 합리성의 붕괴, 제도적 정당성의 파괴,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생태적 가치를 압도하고, 단기적 경제 논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

우리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4대강의 생명의 편에 서서 생태 학살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천막을 치고 농성하며, 머리를 깎고 단식하며, 피약별에 순례길을 걸으며 생명 학살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 생명을 위한 책임이다. 우리의 몸부림은 생명들의 마지막 외침을 대변하는 것이고, 파괴되는 생태계를 향한 애도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권들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개발 만능주의의 낡은 패러다임이 아닌 생명 중심의 새로운 국가 철학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약속과 기만적인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

역사는 새 정부의 선택을 준엄하게 기록할 것이다. 생명의 티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다. 자본의 일방적인 무한 증식이 아닌, 생명을 해치지 않는 나눔과 돌봄의 생명 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다.

생명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생명을 배신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생명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6일

생명의편에선사람들 일동

[빛나는 연대, 순례하는 청명] 새, 사람 함께 살자!

새, 사람행진

지금은 새만금 신공항 철회를 위한 순례를 다니고 있어요. ‘새, 사람행진’ 순례는 8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을 시작으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까지의 일정입니다. 260km.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걷고 있습니다. 행진단은 큰뿔부리도요새 모형을 세발자전거에 실어 앞세우고, 깃발과 피켓을 들고, 각종 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행진을 이어갑니다. 저는 후방 안전을 맡으며 걷고 있습니다. 순례 명칭대로 새와 사람이 함께하는 연대의 길입니다. 간혹 길가에 새가 죽어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 물어주매 다니고도 있네요.

일터를 떠나며

9월은 제가 일터를 떠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퇴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행진 순례 기간에는 주 1일은 센터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중 25년을 언어치료사로 일해 왔는데, 이제는 접으려 합니다. 8월27일에는 한국유틸리티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집회가 있다 하여 당일 행진을 마치고 구미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박정혜 동지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여 일을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8월 29일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착잡하였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사투가 일상인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는지...

30대 초반이었어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적성테스트를 거치면서 언어치료사 직업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언어재활사로 부르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설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몇 명이 의기투합하여 청주에서 지금의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명: 노리벳 아동발달센터.

그동안 느낀점: 깔깔깔 즐거웠다.

공동운영자: 심리치료사 유별, 놀이치료사 종숙, 언어치료사 청명(나).

공동운명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해결은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으나 물처럼 흘러가듯 지켜볼 때도 있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 볼 뿐. 이렇게 17년간을 즐겁게 지내왔던 직장이었습니다.

자급자족 전환을 향해

그런데 제가 2014년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순례를 시작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노동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테면 25년 전 언어치료 주 6일 근무에서, 2014년 순례와 농사공부를 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로, 2017년 핵발전과 기후위기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드러나면서 탈핵과 탈석탄 순례에 집중하기 위해 주 4일 근무로 바꾸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경제시스템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자, 자급자족으로의 전환을 꾀해 보자!”며 주 3일 근무로까지 줄였습니다. 이 때는 저의 경제 환경을 전면으로 바꾸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선 빛이 없어지기도 했고, 지리산에 집과 텃밭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서 소득은 적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접한 가족과 직장동료,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청명은 그동안 삶에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려 반, 응원 반이었습니다.

이후 주 2일 근무에 돌입하면서 청주에서는 오랜 기간의 월세 집을 정리하였어요. 잠은 퇴사 전까지 센터 치료실에서, 저의 모든 생활도구를 담은 36리터 배낭 하나와 자전거, 침낭 하나를 지리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퇴사 3개월 전부터는 주 1일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며 순례를 다니자.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벌기로 하자." 이러한 결정은 나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제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자체. 둘째, 스스로 정한 적정한 소비라는 목표에 걸맞게 정말 적정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인간만의 삶이 아닌 비인간과 같이 사는 삶에 가까워 졌다는 것.

사실 제가 이렇게 변화하려는 다짐과 실행의 이유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성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각박한 지금의 사회에서 제대로 인간답게, 생명체답게 살려면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타인과 타생명체와 서로가 밟고 가야 하는 삶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자각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 경로로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고요.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좇는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이를 만족하기 위한 경쟁과 착취, 빈곤과 타살을 낳는 현시대는 온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술과 담배, 주말 산행으로, 바다로, 캠핑으로, 라이더로, 먹방 유튜브로 그 자리를 메운다 할지언정. 포괄적인 대안은 '물질과 권력으로부터의 탈출' 이었습니다. 이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의 출발은 바로 '적정한 소비'였고요, 제가 탈핵과 비움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우리 사회는 네 가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핵 위기, 경제 위기, 전쟁 위기 말이죠. 그러기에 '에너지 전환'을 대안으로 얘기합니다. 핵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인 빛과 바람으로요. 저는 이와 같은 질적인 전환과 함께 양적인 전환, 기업과 소비자의 적정한 에너지 소비를 우리 세대, 시대의 과제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 한들 '과도한 소비'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어느 기후 과학자가 말하듯 지금의 인류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는 말아야 하겠어요.

연대의 재발견

얼마 전 퇴사 소식을 전체 직장동료들에게 알렸을 땐 서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실내 책꽂이에는 <함께가는 길>, <세월호>, <노동인권>이 꽂혀 있고, 귀퉁이에는 순례 깃발과 몸자보가 놓여있는 치료실 풍경.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고, 부모님들은 순례 잘 다녀오라고, 동료들은 조심히 다니고 밥 잘 먹어야 한다고... 눈앞을 스쳐갑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늘 응원하고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 있는 치료실 사람들. 연대의 재발견입니다.

오늘도 두벅두벅 '새, 사람행진' 길을 걸으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라갯벌의 못 생명과 함께 걷고 있는 행진단 분들, 한국유타칼하이테크의 노동자 분들, 노리벳 아동발달센터의 동료와 아이들, 부모님들, 이 글을 봐주시는 독자님들을 생각합니다. '빛나는 연대'를 이뤄주신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누구나 즐거운 삶'이 이뤄지기를 다시금 꿈꾸어 봅니다.

수라갯벌 보전하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하라!

새, 사람 함께 살자!



Notes On Endurance



On September 5th, we had finally passed Namtaeryeong and made our way into Seoul. By doing so we had roughly walked over 200 kilometers across the peninsula. Whether it was the blisters on our feet, the aching muscles, the tanness of our skins, walking in the midst of climate crises could only leave a mark on our bodies. People ask or often comment whether we are okay, or that it must have been tough to walk all the way into the city. The most common response that we offer is that it has not been hard at all, and in fact the walk has been filled with joy, love and hope even as we understand the difficulty of our struggle. What does our corporeal transition over the span of the month signify in the context of our steady spirit?

Anthropologist Elizabeth Povinelli talks at length about the notion of endurance in an era of late liberalism. Endurance in the context of late liberalism refers to the exhausting persistence that is required to exist under conditions that seek to eliminate or suppress one's way of being. It also refers

to the energy required to weather certain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pressures that come with surviving the extractive violence of late industrial capitalism and developmentalism. The shorebirds and the different forms of life which enter one of the last remaining tidal flats in Gunsan - they too are made to endure.

As we walk I wonder what steadies the spirit? Is it the rhythmic sound of the music? Is it simply now a habit? Or is it that in our endurance we find new alliances and kinships? Might it be the fragility of our bodies tha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new relations with our non-human comrades? That bodies will wither as time goes by is a near certainty, but let us not let our bodies be abandoned on the concrete floors of capitalist exploitation. Let us be the weeds which will crack such concrete floors that once again opens up the world to life.

새와 사람의 초상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살고 싶어요









250902 바지락

250903 금개구리

250904 고라니

250905 알락꼬리마도요

250906 물수리



전쟁 말고 평화!